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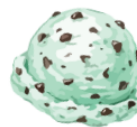
 이름

목동 국어의 자존심
강원희 국어
내신대비 교재

목동의
국어
어포니

2학기 기말고사

백
암
1



강원희
SINCE 2010

강원희국어학원
흔들리지 않는 국어 자신감

목차

01	상춘곡	03
	무엇을 배울까?	05
	(가) 상춘곡 정극인	06
	(나) 산에 가면 박재삼	10
	학습 활동	12
02	한글 맞춤법 — 교재	17
	제1항 —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19
	소리에 관한 것 (제5~13항)	20
	형태에 관한 것 (제15~40항 · 제51 · 56항)	27
	띄어쓰기 (제2 · 41~47항)	41
03	한글 맞춤법 — 교과서	47
	생활 속 발견	49
	무엇을 배울까?	50
	한글 맞춤법과 올바른 표기	51
	학습 활동	57
04	주제 통합적 읽기	63
	생활 속 발견	65
	무엇을 배울까?	66
	인공 지능 예술을 보는 두 가지 시선	67
	(가) 인공 지능, 예술에 도전하다	69
	(나) 예술하는 인공 지능 최선주	73
	학습 활동	77
05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83
	작품 선정 취지 · 작가 소개	85
	작품 개관 · 본문	86
	학습 활동	93
	작품 마무리	96

01

상춘곡

(가) 상춘곡 | 정극인 · (나) 산에 가면 | 박재삼

※ 무엇을 배울까?

[참고] 가사의 발전과 주제의 다양화

조선 전기에는 연군지정, 강호가도를 다룬 작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서민 가사, 유배 가사, 기행 가사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룬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다.

[참고] 강호가도

조선 시대에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사는 선비나 문인들이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면서 일으킨 시가 창작의 한 경향으로, 자연을 예찬하거나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한 시가 문학 작품들을 두루 일컫는 개념이다. 자의로, 때로는 타의로 자연에 머무는 사대부들은 번거로운 속세와 구별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시조와 가사 등의 시가 양식을 통해 표현하였다. 정극인, 송순, 정철, 윤희도 등이 강호가도의 시가를 창작한 대표적인 사대부들이다.

가사

가사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4음보 연속체로서 행(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주로 사대부 계층이 창작하였으나 이후 양반가의 부녀자, 서민 등 여러 계층이 창작하면서 향유층이 확대되고 주제 역시 다양화되었다.

자연 친화적 가치관

우리 문학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연과 어울려 하나 되는 삶의 가치를 노래한 작품이 많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 가치관은 한국 문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문학 작품의 주체적 감상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한다는 것은 감상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문학 작품이라도 작품의 해석 방법이나 감상자의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 문학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문학 작품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어떻게 배울까?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자연 친화’라는 한국 문학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 향유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가)는 봄을 맞은 감흥을 노래한 가사이고, (나)는 산에서 느낀 감정을 노래한 현대 시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감상해 보자.

상춘곡

정극인

상춘(賞春): 봄을 맞아
경치를 구경하며 즐김.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흐고

※ '홍진'(속세) ↔ '산림'(자연)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

넋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옛 사람의 풍류에 미칠 수 있다는 자부심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흐 이 하전마는

'하늘과 땅 사이'라는 뜻. 세상을 의미함.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 화자의 소박한 삶을 나타냄.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자연의 주인.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계절적 배경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있고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봄의 경치를 묘사함.

녹양방초(綠陽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대구법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봄날의 풍경이 칼로 재단하고 붓으로 그려 낸 것 같다는 뜻 -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예찬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아단스럽다, 신비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새에 감정 이입하여 봄을 맞은 기쁨을 표현함.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들소나

※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됨.

다르겠는가?(설의법)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사립문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흐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청유형 문장 ▶ 본사 ①(7~16행): 봄 경치를 즐기며 흥을 느낌.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공간의 확장·이동

답청(踏青)으란 오늘 흐고 욕기(浴沂)란 내일(來日) 흐새

대구법

아침에 채산(採山)흐고 나조히 조수(釣水)흐새

대구법

웃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도연명이 갈건으로 술을 걸러 마셨다는 고사를 인용함.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아름다운 봄의 자연에서 풍류를 즐김.

제재 해설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봄을 맞은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봄을 맞이하는 자연 친화적 삶과 소박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안빈낙도의 삶이 잘 드러나 있다.

5

제재 개관

갈래	양반 가사, 은일 가사, 강호 한정가
성격	묘사적, 자연 친화적, 예찬적
제재	봄의 아름다운 풍경
주제	봄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 속에 사는 삶의 만족감
특징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설의법, 대구법, 직유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함.

10

15

제재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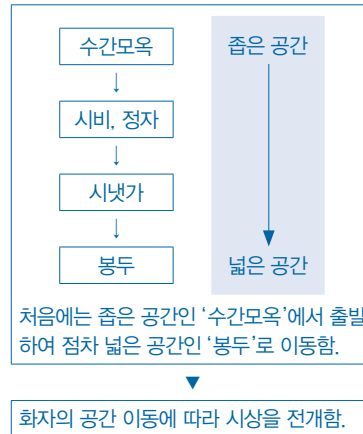
서사	자연에 묻혀 살며 즐거움을 누림.
본사 ①	봄 경치를 즐기며 흥을 느낌.
본사 ②	산수 구경을 권유하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김.
결사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20

| 현대어 풀이 |

속세에 묻힌 분들, 이내 생애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 세상 남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초가집 몇 칸을 푸른 시내 앞에 두고
 송죽 울창한 곳에 자연의 주인 되었구나.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향긋한 풀은 가랑비에 푸르도다.
 칼로 재단했는가, 붓으로 그려 냈는가.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신비롭구나.
 수풀에 우는 새는 봄 흥취에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이니 흥이야 다를쏘냐.
 사립문 주변 걸어 보고 정자에도 앉아 보고
 산보하며 읊조리니 산중 생활 적적한데,
 한가함 속 즐거움을 알 이 없이 혼자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 수 세며 먹으리라.

핵심 사상 전개 방식



✓ 새로 알게 된 어휘에 표시

- **흥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물아일체** 외물(외부 세계)과 자아(나)가 어울려 하나가 됨.
- **소요음영**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나지막이 시를 읊조림.
-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갖드는 참다운 맛.
- **답청**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함.
- **욕기** 기수(沂水)에서 목욕한다는 뜻으로, 명리를 잊고 유유자적함을 이르는 말.



정국인(1401~1481)

조선 전기의 문인. 호는 불우헌(不憂軒). 말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태인(지금의 전북 정읍)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문집 『불우헌집(不憂軒集)』을 남겼다.

핵심 자연에 동화된 물아일체의 경지

수풀에 우는 새는 ~ 물아일체이니 흥이야 다를쏘냐

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봄을 맞은 설렘과 기쁨을 표현함. 봄이 되어 자연의 사물이 느끼는 흥과 화자 자신이 느끼는 흥이 다르지 않음을, 즉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함.

독해 점검

1. 화자는 속세를 떠난 자연 속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 X
2. 화자는 ()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며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와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 봄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후각의 시각화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썩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는 자연물 - '무릉'을 연상시킴.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송간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소나무 사이 좁은 길 진달래꽃(봄을 나타내는 소재)

「봉두(峰頭)에 굽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보니

「」: 봉우리에 올라 구름 속에 ○앉아 천촌만락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함.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꺾는 듯

비단을 펼쳐 놓은 듯(직유법)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 ○홀샤

▶ 본사 ②(17~35행): 산수 구경을 권유하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김.

겨울 들판 꺼리고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 주객전도의 표현.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린다는 의미임.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자연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호튼 혜음 아니 ○헛네

※ 헛된 생각 - 공명, 부귀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남.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 ○흔들 엇지 ○헛리

자연 속에서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남. ▶ 결사(36~39행): 안빈낙도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핵심 화자의 자연관

흥진(속세)	산림(자연)
공명, 부귀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위한 공간으로, 이를 멀리하고자 함.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청빈한 삶을 사는 공간으로, 이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낌.
자연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임.	

| 현대어 풀이 |

화창한 바람이 살짝 불어 푸른 시내 건너오니
 맑은 향은 잔에 지고 붉은 꽃잎은 옷에 지네.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아뢰어라.
 아이더러 술집에서 술 받아 오라 하여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흥얼대며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물 굽어보니 복숭아꽃 떠오르는구나.
 무릉도원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술숲 오솔길에 진달래 부여잡고
 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집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연하일취는 비단을 펼친 듯,
 엇그제 검던 들이 봄빛도 넘치는도다.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단표누향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무튼, 한평생 삶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핵심 자연 경관에 대한 묘사

① 감각적 표현

화풍이 건듯 부러 ~ 낙홍은 옷새 진다
봄바람이 푸른 시내를 건너오며 머금고 온 맑은 향기가 술잔에 떨어지고, 봄바람에 꽃잎이 옷에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함. '청향은 잔에 지고'는 후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켜 표현한 부분임.

② 비유적 표현

연하일취는 금수를 재떨는 듯
봉우리에 올라 내려다본 자연의 경치를 비단을 펼쳐 놓은 모습에 빗대어 표현함.

- **준중** 술독의 안.
- **미음완보**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닐.
- **무릉** 무릉도원.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천춘만락** 수많은 춘락.
- **연하일취**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공명**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
-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 **단표누향** 누향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 **백년행락** 한평생 잘 놀고 즐겁게 지냄.

- 최현재 옮김,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

독해 점검

1. 화자는 술을 마시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해소하고자 한다. → X
2.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얻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X



나의 감상 • 봄의 풍경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시구는?

제재 해설 '산'을 소재로 하여 화자가 자연을 통해 생명력과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그린 현대 시이다. 작품 속에서 '산'은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자 회복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산'의 모습을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산에 가면 박재삼

산에 가면

※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우거진 나무와 풀의

산을 이루는 요소들

후덥지근한 냄새,

▶ 1연: 산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혼령도 눈도 코도 없는 것의

흙냄새까지 서린

생명의 원천인 흙의 기운까지 서린

아,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휴식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목숨의 골짜기 냄새,

▶ 2연: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인 산

「한동안을 거기서

「: '산'에서의 휴식

내 몸을 쉬다가 오면」

쉬던 그때는 없던 내 정신이

생명력이 없는 상태, 지쳐 있는 상태

비로소 풀빛을 띠면서

나뭇잎 반짝어림을 띠면서

내 몸 전체에서

정신의 그릇을 넘는

후덥지근한 냄새를 내게 한다.

※ 생명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3연: 산에서의 휴식을 통한 생명력의 회복

— 박재삼, 「햇빛 속에서」

독해 점검

1.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2. '나'는 산에서의 ()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다. → 휴식



박재삼(1933~1997)

시인. 일상생활과 자연에서 소재를 찾아 삶의 애환, 향토적인 서정 등이 담긴 시를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추억에서」, 「흥부 부부상」 등이 있다.

제재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자연 친화적, 감각적
제재	산
주제	자연의 생명력을 통한 회복
특징	•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함. •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생명력을 예찬함.

제재 구조도

1연	산에서 느껴지는 생명력
2연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인 산
3연	산에서의 휴식을 통한 생명력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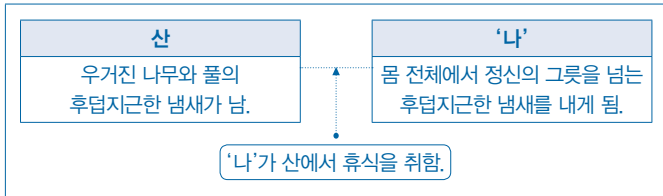
핵심 표현상 특징 - 감각적 심상 활용

- 나무와 풀의 냄새, 흙냄새, 골짜기 냄새(후각적 심상)
- 풀빛, 나뭇잎 반짝어림(시각적 심상)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함.

핵심 작품에 나타난 자연 친화적 가치관



인간이 자연과 동화되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냄.

앞에서 감상한 「상춘곡」과 「산에 가면」을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수용하고,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자연 친화적 가치관을 이해해 보자.

1

한국 문학사의 흐름 고려하여

작품 수용하기

지도 가이드 문학 작품에서 작품의 제목은 주제 의식과 연관되거나 중요 소재나 인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제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를 수용해 보자.

① 이 작품의 제목에 주목하여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예시 답

賞

즐길 상

화자는 어떤 태도나 정서를 보이고 있는가?

봄을 즐길.

春

봄 춘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봄의 경관

曲

가락 곡

이 작품은 어떤 갈래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

4음보 연속체, 운율이 있음.

②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 보자.

보기

무릉

수간모옥

시냇가

한중진미

[참고] 무릉도원(武陵桃源)

‘도원경(桃源境)’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복숭아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다.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중국 진(晉)나라 때 호남(湖南) 무릉의 한 어부가 복숭아 꽃잎이 떠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가다 우연히 한 마을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너른 땅과 기름진 논밭 등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부가 그곳의 사람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은 진(秦)나라 때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로, 하도 살기 좋아 그동안 바깥세상이 변하고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예시 답



③ ②를 바탕으로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 보자.

예시 답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으며,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2

한국 문학사의 흐름 고려하여
작품 수용하기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나)를 수용해 보자.

① 빈칸을 채우며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

1연 산에 가서 나무와 풀의 냄새 을/를 맡음.

2연 자연의 냄새를 맡고 높고 싶다 고 생각함.

3연 산에서 쉬면서 정신 과/와 몸 이/가 달라진 것을 느낌.

② 다음 구절을 바탕으로 이 시에서 자연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 우거진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
- 흙냄새까지 서린

예시 답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시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목인 ‘산에 가면’에 이어질 수 있는 말을 써 보자.

예시 답

산에 가면
정신적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산에 가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지.

산에 가면
다시 현실을 살아
갈 힘을 얻을 수
있지.

3

한국 문학사에 나타나는
특성 이해하기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알아보자.

① 다음을 참고하여 (가)의 화자에게 ‘홍진’과 ‘산림’은 어떠한 공간인지 정리해 보자.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 혼고

.....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볼 것가

.....

공명(功名)도 날 띄우고 부귀(富貴)도 날 띄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хот든 혜음 아니 혼디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 혼돌 엇지 혼리

홍진 = 속세

공명과 부귀를 위한 공간

산림 = 자연

예시 답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며 청빈한 삶을 사는 공간

지도 가이드 ‘산에서’와 ‘내 몸 전체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산’과 ‘나’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도록 지도한다.

② 다음 시구를 바탕으로 (나)의 화자에게 ‘산’은 어떠한 공간인지 정리해 보자.

산에서

우거진 나무와 풀의
후덥지근한 냄새

내 몸 전체에서

정신의 그릇을 넘는
후덥지근한 냄새

화자에게

‘산’은

예시 답 • 자연과 동화되는 공간이다.
• 생명력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③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공통적인 태도를 파악해 보자.

예시 답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는 자연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와 (나)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❶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의 해석이다. 학생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했는지 생각해 보자.

(가)는 봄날의 흥취를 느끼며
만족감을 노래한 작품이야. 자연에
묻혀 사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었어.



정호

(가)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 작품이야.
'공명도 날 쇠우고 부귀도 날 쇠우니', '꽃튼 혜음'
에서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어.



유미



소연

(나)는 '나무와 풀'의 '냄새', '흙냄새',
'골짜기 냄새'와 같이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어.
나도 산에 갔을 때 느껴 본 냄새라
이러한 표현들이 인상 깊었어.



학범

(나)는 지친 몸과 정신이 자연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 '꽃빛을 띠면서', '나뭇잎
반짝여림을 띠면서'와 같은 구절이
인상적이야.

예시 답 '정호'는 작품에 반영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풍류에, '유미'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가치관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였다. '소연'과 '학범'은 작품의 심상에 주목하였는데, '소연'은 후각적 심상을, '학범'은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였다.

❷ ❶과 같이 동일한 작품이라도 사람마다 감상과 해석이 다양한 까닭을 말해 보자.

예시 답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감상자의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작품에 대한 감상과 해석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 도움말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또한 문학 작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가)와 (나)에 대한 자신의 감상이나 해석을 자유롭게 적어 보고,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나의 작품 감상

- 예시 답**
- (가)의 '청풍명월 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에서 화자가 자연을 벗으로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산에 올라 나무와 풀의 냄새를 맡으며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온 경험이 있어서 (나)의 화자의 모습에 공감이 되었다.

어휘력 키우기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를 찾아 빈칸에 넣어 보자.

한중진미(閒中眞味)

단표누항(簞瓢陋巷)

연하일휘(煙霞日輝)

① 한가한 가운데 깃드는 참다운 맛.

한중진미

②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연하일휘

③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단표누항

02

한글 맞춤법 — 교재

총칙 · 소리 · 형태 · 띄어쓰기 — 연습 문제 1~17

한글 맞춤법 살펴보기



제 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음주의 #표의주의

메 모

* 표음주의 표의주의

	같은 표현	장단점
표의주의	→ “(형태소의)원형을 밝혀 적는다.” → “뜻을 밝혀 적는다.” → “구별하여 적는다.” → “~임에도 ○○로 적는다.”	→ 장점: 뜻을 파악하기가 쉽다. → 단점: 표기를 따로 익혀야 한다.
표음주의	→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발음대로 적는다.”	→ 장점: 표기를 따로 익힐 필요가 없다. → 단점: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읽기가 힘들다.

꽃(花)	(1) [꼬ㄷ]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에[꼬체]
	(2) [꼐]	꽃나무[꼐나무]	꽃놀이[꼐노리]	꽃망울[꼐망울]
	(3) [꼐]	꽃과[꼐과]	꽃다발[꼐따발]	꽃밭[꼐밭]

→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형태소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본 모양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1. 다음 <보기>의 단어를 표음주의나 표의주의 원칙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보기>—

날개, 꽃이, 하늘, 밥을,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1) 표음주의:

(2) 표의주의:

제 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ㄱ, ㄷ, ㅂ, ㅅ, ㅈ)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표음주의 #뚜렷한 까닭 없이 #한 단어 = 보통은 한 형태소 내부

메 모

※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쓷하다	가끔	거꾸로	부쩍
어찌	이따금		

※ ‘ㄴ, ㄹ, ㄴ,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짤	몽땅	엉뚱하다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쌉둑(~쌉둑)	법석	갑자기	몹시

2. 다음 제시된 단어가 제5항의 ㉠~㉣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써 보자.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ㄴ, ㄹ, ㄴ,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단어	항목
(예) 오빠	㉠
① 담뱃	
② 똑똑하다	
③ 어깨	
④ 산뜻하다	
⑤ 쓱쓱	
⑥ 아끼다	

제 8항

- ‘계, 례, 메, 폐, 혜’의 ‘ㄱ’은 ‘ㄱ’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표의주의 #잘 안나옴

메 모

ㄱ(○)	ㄴ(X)	ㄱ(○)	ㄴ(X)
계수(桂樹)	게수	혜택(惠澤)	헤택
사례(謝禮)	사레	계집	게집
연메(連袂)	연메	핑계	핑계
폐품(廢品)	페품	게시다	게시다

✳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	----------

제 9항

- ‘악,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표의주의 #애는 은근 나옴. 학교 강조하면 프린트는 보라.

ㄱ(○)	ㄴ(X)	ㄱ(○)	ㄴ(X)
의의(意義)	의이	닝큼	닝큼
본의(本義)	본이	띠어쓰기	띠어쓰기
무늬[紋]	무니	씩어	씨어
보늬	보니	티어	티어
오늬	오니	희망(希望)	히망
하늬바람	하니바람	희다	히다
닐리리	닐리리	유희(遊戱)	유히

제 10항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표음주의 #두음법칙

ㄱ(○)	ㄴ(X)	ㄱ(○)	ㄴ(X)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중(兩-)	년(年) (몇 년)
------	--------	------------

※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	--------	--------	--------

※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	----------	------------

※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	----------

메 모

♪ 저(Oh) 너머의
(인간 녀짜!)
우리는(Oh) 결코
우리가
(Ahhhhhhhhhhh) 될
수 없단다.

제 11항

-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표음주의 #두음법칙

ㄱ(○)	ㄴ(X)	ㄱ(○)	ㄴ(X)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룽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	-------	------	-----------

- *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射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真理)

- * [다만]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X)	ㄱ(○)	ㄴ(X)
나열(羅列)	나렬	규율(規律)	규룰
치열(齒列)	치렬	비율(比率)	비룰
비열(卑劣)	비렬	실패율(失敗率)	실패룰
분열(分裂)	분렬	선율(旋律)	선룰
선열(先烈)	선렬	전율(戰慄)	전룰
진열(陳烈)	진렬	백분율(百分率)	백분룰

- * [붙임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림(申稔)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	--------	--------	--------

- * [붙임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	---------------

※ [붙임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	----------	------------

※ [붙임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	-------	------------------

메 모

제 12항

• 한자음 ‘라, 래, 로, 료,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바꿈.)

#표음주의 #두음법칙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규율(規律)	규를
치열(齒列)	치렬	비율(比率)	비를
비열(卑劣)	비렬	실패율(失敗率)	실패를

※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	----------	----------	------------

3. 제5항과 제11항을 참고하여 각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찾아 ○ 표시를 해 보자.

〈보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 ㉡ ‘ㄴ, ㄹ, ㄹ,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제10~12항 두음법칙

메 모

① 피아노의 [선룰 / 선율]이 흐르고 있다.
② 형의 [해속한 / 해씩한] 얼굴
③ [백분룰 / 백분율]로 계산하다.
④ 어머니께서 [깍뚜기 / 깍두기]를 담갔다.
⑤ 이가 [몽땅 / 몽당] 빠지다.
⑥ 대학 [합격룰 / 합격율]이 높다.
⑦ [짹짹한 / 짹짹한] 음식은 몸에 해롭다.
⑧ 바닷속에 [용궁 / 룡궁]이 있을까?
⑨ [유리 / 류리]로 만든 컵
⑩ 정성이 [듬뿍 / 듬뿍] 담긴 도시락
⑪ 바닥에 [납작 / 납작] 엎드리다.
⑫ 옷을 [거꾸로 / 거꾸로] 입다.
⑬ 동생이 [법석 / 법씩]을 부렸다.
⑭ 그 음악을 들으니 [전율 / 전룰]이 흐른다.
⑮ 그 일은 [실패룰 / 실패율]이 높다.

제 13항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 #표음주의 #첩어(疊語) #첩어적 성격

ㄱ(○)	ㄴ(X)	ㄱ(○)	ㄴ(X)
딱딱	딱닥	꽃꽃하다	꽃곳하다
색색	색닥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능눅하다
똑똑똑딱	똑닥똑닥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씩	씩닥씩씩	쌈쌈하다	쌈닥하다
연연불망(戀戀不忘)	연련불망	쌈쌈하다	쌈살하다
유유상종(類類相從)	유류상종	쌈쌈하다	쌈술하다
누누이(屢屢-)	누루이	짹짹하다	짹잘하다

메 모

제 15항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표의주의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올다	올고	올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용언 + 용언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원형을 밝히어 적음	넘어지다 돌아가다 떨어지다 접어들다	늘어나다 되짚어가다 벌어지다 틀어지다	늘어지다 들어가다 얹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소리 나는 대로 표기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X)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X)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제 19항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표의주의 ★ 매우매우 중요한 조항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달이
	벌이	벼훅이	살림살이	쇠붙이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만듦	앓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중요!

★ ‘-이’, ‘-히’, ‘-음’: 특별 대우 접미사. 현대에도 널리 쓰여 단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사람들이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원형을 밝혀 적는다.

ㅇㅅ) 가상의 신조어 ‘매달이’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형태를 보고 ‘매달다’와 관련있는 단어라고 알 수 있다. 만약 이를 ‘매다리’로 적어놓는다면 사람들은 신조어인지, 혹은 ‘매의 다리’인지 헷갈릴 것이다.

생산성이 있다 = (비교적) 널리 쓰이는 접미사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명사로 바뀐것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울가미	주검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불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 나마	부터	조차	마저(맞아)

✱ ‘넘어’, ‘너머’, ‘너무’의 구분

산을 넘어(동사) 날아간다. 산 너머(명사)에 있는 마을 사람이 너무(부사) 많다.

✱ ‘넘어’, ‘너머’, ‘너무’의 구분

괴로움을 참아(동사) 왔다. 차마(부사) 때릴 수는 없었다.

메 모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메 모

굽도리	다리[髀]	목거리(목병)	무너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중요!

★ ‘목걸이’와 ‘목거리’ / ‘놀음’과 ‘노름’

① ‘목걸이’: 어간 ‘걸-’에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고 “어간의 뜻이 유지가 됨”
 ‘목거리’: 어간 ‘걸-’에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짐”
 ⇒ ‘걸다’와 ‘아프다’는 관련이 없음

② ‘놀음’: 어간 ‘놀-’에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음’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고 “어간의 뜻이 유지가 됨”
 - 노는 것, 연극 등의 의미를 지님.
 ‘노름’: 어간 ‘놀-’에 널리 쓰이는 접미사 ‘-음’가 붙어서 명사가 되었고 “어간의 뜻과 멀어짐”
 ⇒ ‘놀다’와 ‘동작 그만 밀장빼기나?’는 관련이 없음

제 20항

•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표의주의 ★ 매우매우 중요한 조항 #19항이랑 재료 구분 필수!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뭇뭇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절름발이					

✱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꼬락서니	꼬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4. 제19항을 참고하여 틀린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 써 보자.

문장		올바른 표기
① 그는 기피가 있는 사람이다.	→	
② 달마지를 하며 소원을 빌었다.	→	
③ 알음은 힘이다.	→	
④ 그 일은 구지 하지 않아도 된다.	→	
⑤ 그 소문은 이키 들어 알고 있다.	→	
⑥ 그는 놀음에 빠져서 패가망신했다.	→	
⑦ 목이 아픈 걸 보니 목걸이에 걸렸나 보다.	→	
⑧ 저 산 넘어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	
⑨ 참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	
⑩ 먼발치로남아 보게 되어 기뻐다.	→	
⑪ 그는 새로운 삼을 되찾았다.	→	
⑫ 철수붙어 줄을 서라.	→	
⑬ 발에 걸음을 부려야 한다.	→	

메 모

5. 제20항을 참고하여 틀린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 써 보자.

문장		올바른 표기
① 나무의 잎아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	
② 관광지에 방문객이 줄주리 이어졌다.	→	
③ 방안 곳곳을 살사치 뒤져 보았다	→	
④ 집웅 위로 올라가 보아라	→	
⑤ 그는 틈트미 시간을 내서 공부를 했다.	→	
⑥ 옷을 겹겨비 꺼 입었다	→	
⑦ 겨울의 끝으머리에 왔다.	→	
⑧ 그는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저리 이야기했다.	→	
⑨ 기린은 목아지가 정말 길다	→	
⑩ 박아지로 물을 뜨다.	→	

제 23항

-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표의주의 #암기조항 #상식과 다름

ㄱ(○)	ㄴ(X)	ㄱ(○)	ㄴ(X)
칼쪽이	칼जू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쌉쌉이	쌉새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떨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삐죽이	삐जू기	흘쪽이	흘जू기

✱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접미사 ‘-이’가 붙은 것	개구리	깍두기	매미	기러기	벼꾸기
다른 모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붙은 것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부스러기	귀뚜라미

제 25항

- ‘-하다’가 붙는 어근에 ‘-하’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표의주의 #사실 51항이 본체

※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뎅이	일찍이	해죽이

※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	--------	-----

제 51항

-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표의주의 #암기 필수 조항

‘이’로만 나는 것	깨끗이, 느긋이, 버젓이, 가까이, 고이, 깊이, 겹겹이, 일일이, 툼툼이, 곰곰이, 더욱이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엄격히, 정확히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소홀히, 쓸쓸히, 꼼꼼히, 분명히, 고요히, 도저히

6. 제23항을 참고하여 올바른 표기를 찾아 ○ 표시를 해 보자.

① 실망하지 말고 [오뚝이 /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봐.
② 이 집 [깍둑이 / 깍두기]가 정말 맛있어요.
③ 한밤중에 [삐죽이 / 삐꾸기]가 운다.
④ 거지가 [누덕이 / 누더기]를 걸치다.
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홀죽이 / 홀쭉기]가 되었더라.
⑥ 그는 [배불뚝이 / 배불뚱기] 아저씨가 다 됐더라.
⑦ 우리집 강아지 중에 [얼룩이 / 얼루기]가 가장 똑똑하다.
⑧ 종이에 [동글아미 / 동그라미]를 그린다.

7. 제25항을 참고하여 올바른 표기를 찾아 ○ 표시를 해 보자.

① [일찍이 / 일찌기] 등교하다.
② 옛일을 [어렴풋이 / 어렴푸시] 기억해 내다.
③ 그녀가 나를 보고 [해죽이 / 해주기] 웃었다.
④ 집을 [깨끗이 / 깨끄시] 치워라.
⑤ [갑작이 /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⑥ [곰곰이 / 곰고미] 생각에 잠기다.
⑦ [반듯이 /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와라.
⑧ 이 대회를 [꾸준이 /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8. 제51항을 참고하여 올바른 표기를 찾아 ○ 표시를 해 보자.

① 밥을 [느긋이 / 느긋히] 먹자.
②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 틈틈히] 알아 보자.
③ 움직이지 말고 [가만이 / 가만히] 있어라.
④ 나에게 [솔직이 / 솔직히] 말해라.
⑤ [딱이 /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⑥ 글을 [꼼꼼이 / 꼼꼼히] 읽어 보자.
⑦ 그는 집 뒤에 [쓸쓸이 / 쓸쓸히] 앉아 있었다.
⑧ 우리 같이 [곰곰이 / 곰곰히] 생각해 보자.

제 30항

• 사이사잇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illegible]

메 모

최우선 검토 사항	① 합성어 필수 검사!!! (접사 없어야 해!) ② 순우리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함! ③ 발음 검사!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말에 ㅅ이 들어갈 자리는 비어 있어야 함)
----------------------	--

✱ 순우리말 어근 + 순우리말 어근

뒷말 첫소리 된소리				
고랏재	긋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땃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뺨길	벗가리	부싷돌	선짓국	
췌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잣더미	조갯살	찹집	첻바퀴	
킷값	핏대	헛별	헛바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털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넋물	빋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웃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깻잎	웃잎	깻잎	나뭇잎	댓잎

✱ [한자어 + 순우리말] or [순우리말 + 한자어]인 경우

메 모

뒷말 첫소리 된소리				
긋병	머릿방	뺏병	붓둑	사자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차잔
차종	춧국	긋병	뺏줄	뺏세
뺏기	헛수	헛가루	헛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긋날	제삿날	헛날	뺏마루	양차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헛일	

✱ [한자어 + 한자어] 예외적 허용!! 두 글자 일 때만!!

긋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뺏간(退間)	헛수(回數)

9. 제30항을 참고하여 [A]~[F]에 들어갈 예를 찾아 적어 보자.

메 모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A]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B]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C]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D]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E]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F]

- | | | | |
|-----------|----------|----------|----------|
| ① 베갯잇 | ② 귓병(病) | ③ 틈(退)마루 | ④ 자릿세(貰) |
| ⑤ 핏기(氣) | ⑥ 빗물 | ⑦ 햇볕 | ⑧ 훗(後)날 |
| ⑨ 예삿(例事)일 | ⑩ 뒷일 | ⑪ 아랫집 | ⑫ 아랫니 |
| ⑬ 아랫마을 | ⑭ 머릿방(房) | ⑮ 귓밥 | ⑯ 뺨길 |
| ⑰ 바닷가 | ⑱ 나뭇가지 | ⑲ 모깃불 | ⑳ 텃마당 |

(1) [A]에 들어갈 예 :

(2) [B]에 들어갈 예 :

(3) [C]에 들어갈 예 :

(4) [D]에 들어갈 예 :

(5) [E]에 들어갈 예 :

(6) [F]에 들어갈 예 :

10. 제30항을 참고하여 [A]~[F]에 들어갈 예를 찾아 적어 보자.

① 수업을 받은 [회수 / 횡수]를 기억할 수 없다.

② 그는 투자 자금을 [회수 / 횡수]하려고 한다.

③ 배가 아파서 [내과 / 냇과]에 가봐야겠어.

④ 저 사람이 [세방 / 셋방] 주인이다.

⑤ 나는 [이과 / 잇과]가 적성에 맞는다.

제 35항

-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왔/왔’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 #준말

꼬아 → 꺾	꼬았다 → 꺾다
두어 → 뒸	두었다 → 뒸다

※ [붙임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붙임2] ‘뇌’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냈’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괴어 → 깨	괴었다 → 깨다
되어 → 돼	되었다 → 됐다
뵈어 → 뵈	뵈었다 → 뵈다

제 38항

- ‘ㅏ, ㅑ, ㅓ, ㅕ, ㅗ, ㅛ’ 뒤에 ‘-아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 #준말

 싸이어 → 싸어/싸여	뜨이어 → 띄어/뜨여
보이어 → 뵈어/보여	쓰이어 → 씹어/쓰여
쏘이어 → 쏘어/쏘여	

제 39항

-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 #준말 #준대로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적지 않은 →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 ‘귀찮-, 점잖-’처럼 어간 끝소리가 ‘ㅎ’인 경우는, [찬]으로 소리 나더라도 ‘귀찮지 않다→귀찮잖다, 점잖지 않다→점잖잖다’로 적는다.

제 40항

-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때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표음주의 #준말 #준대로 #아주 준대로

간편하게 → 간편케	다정하다 → 다정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정결하다 → 정결타
가하다 → 가타	흔하다 → 흔타

✱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 (그냥 암기인데 틀리는게 바보)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거북하지 → 거북지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 익숙지 않다

중요!

★ “아주 줄 적”의 기준!

- ‘하’ 앞의 어근의 받침 “소리”가 [ㄱ, ㄷ, ㅂ]이면 ‘하’가 아주 줄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하’의 ‘ㅏ’가 준다.
- “생각하건대”를 많이 기억하라고 함: “생각하면 건대간다” → 생각건대로 줄.
- 핵심은 ‘받침’이 아닌 받침 “소리”!! 따라서 “깨끗하지 않다”도, 깨끗지 않다로 줄.

✱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11. 제35항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의 준말을 써 보자.

단어		준말
(예) 꼬았다	→	꿘다
① 두어	→	
② 놓아	→	
③ 괴었다	→	
④ 되었다	→	
⑤ 뵈어	→	

메 모

12. 제38항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의 준말을 써 보자.

단어		준말
(예) 싸이어	→	(쌔어), (싸여)
① 보이어	→	(), ()
② 쓰이어	→	(), ()
③ 쏘이어	→	(), ()
④ 트이어	→	(), ()
⑤ 누이어	→	(), ()

13. 제39항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의 준말을 써 보자.

단어		준말
(예)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① 편안하지 않다	→	
② 적지 않은	→	
③ 만만하지 않다	→	
④ 심심하지 않다	→	
⑤ 평범하지 않다	→	

14. 제시된 단어가 제40항, [붙임1], [붙임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써 보자.

단어	준말
(예) 거북하지 - 거북지	[붙임2]
① 아니하다 - 않다	
②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③ 그러하다 - 그렇다	
④ 다정하다 - 다정타	
⑤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⑥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메 모

제 56항

• ‘- 더라, - 던’과 ‘-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그냥 외울것

✱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 더라, -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X)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X)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 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 시작!

메 모

외국어 띄어쓰기보다 우리말 띄어쓰기가 어려운 거 실화입니다

일본어 : 다 붙이면 됨.
중국어 : 다 붙이면 됨.
영어 : 단어 다 띄면 됨.
한국어 : 너 따위가 이것이 단어인지 조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제 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 형식형태소이자 의존형태소. 그러나 '한 단어'로는 취급함.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나가면서까지도	들어가기는커녕
웁니다그러	“알았다.”라고	

제 42항

-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 명수: 반드시 꾸며주는 말을 필요로 하는 명사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 띄어쓰기를 해봅시다. (절대 시험에 안나옴)

- 할머니가죽을드신다
- 무지개같은사장님
- 안동시체육회
- 서울시장애인복지관
- 손님을내가족같이모시겠습니다.
- 달은대충돌로만들어졌다.
- 회사줄게
- 아가라구요
- 너무심했잖아!
- 사랑해보고싶어
- 너나안본지두달다돼감

※ 품사 통용 (나오면 슬퍼짐)

메 모

들, 등	접미사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씀. ○ㄱ) 학생들, 어린이들
	의존명사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씀 ○ㄱ) 보리, 콩 들을 오곡이라 부른다
뿐	접미사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적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씀. ○ㄱ) 너뿐이다
	의존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으)ㄹ’ 뒤에서 ‘그럴 따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씀 ○ㄱ) 네 말에 나는 웃을 뿐이다
대로	조사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면 조사로 다루어 붙여 씀 ○ㄱ) 법대로 하자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쓰이면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씀 ○ㄱ) 버는 대로 다 쓰는 사람과 내가 왜 사귀어야 하는데?
만큼	조사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의 뜻으로 쓰이면 조사로 다루어 붙여 씀 ○ㄱ) 그만큼 널 사랑해서 그래!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실컷’의 뜻으로 쓰이면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씀 ○ㄱ) 네 말은 들을 만큼 다 들었어.
만	조사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내면 조사로 다루어 붙여 씀 ○ㄱ)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의존 명사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면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씀 ○ㄱ) 십년 만에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지	어미의 일부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씀(‘-ㄴ지’가 하나의 어미) ○ㄱ) 난 너의 사랑이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면 의존 명사로 다루어 띄어 씀 ○ㄱ) 너랑 만난 지 십년이 지났는데 그런 말이 나와?
차	접미사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접미사로 다루어 붙여 씀 ○ㄱ) 넌 그저 연습차 나를 만는 것 같아.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겹쳐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ㄱ) 사실 이번에 고향에 갔던 차에 한 남자를 보았어.
판	어근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이므로 붙여 씀 ○ㄱ) 노름판에서 밀장 빼다 걸려 싸움판을 벌이다가 개판 오 분 전에 만난 사람이야.
	의존 명사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ㄱ) 그는 수백 판 동안 밀장을 빼다 그제서야 걸린거야.
바	어미의 일부	‘-바’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붙여 씀(‘-ㄴ바’가 하나의 연결어미) ○ㄱ) 그의 죄가 큰바 사형에 처한다.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말.’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ㄱ) 어맛, 이번 사건에서 느낀 바가 있어요. 역시 도박하는 남자는 사귀는게 아니란걸!

15. 음은 한글 맞춤법 중 띄어쓰기와 관련된 규정이다. 예문의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설명이 띄어쓰기 규정에 맞으면 ○, 틀리면 ×에 표시해 보자.

예문	설명	○ / ×
① 어제 옷 한벌을 샀다	‘벌’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한’과 띄어 써야 한다.	○ ×
②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으로’와 ‘부터’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으로V부터’로 띄어 써야 한다.	○ ×
③ 이 사건은 모두가 놀랄 일이다.	‘이’는 한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④ 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	‘마리’는 혼자 쓸 수 없으므로 ‘한마리’로 붙여 써야 한다.	○ ×
⑤ 학교에서 부터 한 시간 거리이다.	‘에서’와 ‘부터’는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
⑥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큰’과 ‘형’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큰V형’으로 띄어 써야 한다.	○ ×
⑦ 그가 공부를 잘하는줄은 알았다.	‘줄’은 관형어 ‘잘하는’의 꾸밈을 받고 있으므로 띄어 쓴다.	○ ×
⑧ 가진 것은 체력뿐이다.	‘뿐’은 앞말 ‘체력’과 띄어 써야 한다.	○ ×
⑨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걸’은 관형어 ‘쌓였는’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
⑩ 방학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다.	‘지’는 어미의 일부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

제 43항

•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단위 명사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짝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괘

✱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 44항

•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숫자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 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

제 45항

•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and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제 46항

•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원칙	허용
이 곳 저 곳	이곳 저곳
내 것 네 것	내것 네것
이 집 저 집	이집 저집
한 잔 술	한잔 술

메 모

제 47항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보조용언: 다른 용언에 부가되어 부속적인 의미를 첨가하는 용언

(1)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2)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을 가리킨다.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조 용언을 띄어 쓴다.

본용언	+	보조 용언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잘도 녹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		그가 올 듯'도' 하다. ('듯하다'가 한 보조 용언) 잘난 체'를' 한다. ('체하다'가 한 보조 용언)

16. 제43항과 제45항, 제46항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고쳐 보자.

메 모

(예) 나무V한V그루가 있다.
① 아침점심을 먹는다.
② 2016학년도 수능은 11월12일이었어.
③ 회의는 세시오십분에 끝납니다.
④ 강아지 다섯마리가 차한대를 쫓아서 뛰어간다.
⑤ 책의 제 일과를 펴 보세요.
⑥ 과일과 채소등 원하는 대로 담으세요.
⑦ 비가 올 확률은 50%내지60%이다.
⑧ 우리 학교가 삼대일로 지고 말았다.
⑨ 내것네것을 구별하지 말고 편히 쓰렴.
⑩ 그는 거처를 정하지 못해 이집저집 옮겨 다녔다.

17. 제47항을 참고하여 문장의 띄어쓰기가 옳바르면 ○, 틀리면 ×를 써 보자. 또한 띄어쓰기가 틀린 경우 맞는 띄어쓰기를 표시해 보자.

문장		문장	
(예) 떠내려가V버렸다.	X	(예) 떠내려가 버렸다.	○
① 불이 꺼져 간다.		② 불이 꺼져간다.	
③ 비가 올 듯하다.		④ 비가 올듯하다.	
⑤ 놀아만 나는구나!		⑥ 놀아만나는구나!	
⑦ 책을 읽어도 보고		⑧ 책을 읽어도보고	
⑨ 그가 올 듯도하다.		⑩ 그가 올 듯도 하다.	
⑪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⑫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⑬ 잘 아는 척하다.		⑭ 잘 아는척하다.	
⑮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⑯ 네가 덤벼들어보아라.	

03

한글 맞춤법 — 교과서

02 한글 맞춤법의 이해

02

한글 맞춤법의 이해

생활  발견

지도 가이드 고객의 요청 사항 중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고객과 가게 사장 사이에 소통의 오류가 생긴 까닭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다음 상황에서 가게 사장님이 고객의 요청 사항을 오해한 까닭을 말해 보자.

학습 목표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떡볶이 조아

사장님……. 떡볶이에 떡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ㅠㅠ 떡볶이 국물 만이 달라고 요청했더니, 떡은 거의 없고 국물만 주셨어요.

사장님

떡볶이 조아님, 죄송합니다.
주문 요청 사항에 “떡볶이국물만이요.”라고 되어 있어서…….
떡볶이 국물만 달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시 답 고객은 떡볶이 국물을 ‘많이’ 달라는 요청을 적을 때 맞춤법에 맞게 적지 않고 ‘만’이라고 적었다. 또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채 ‘떡볶이국물만이요.’라고 적었다. 이 때문에 가게 사장님은 ‘떡볶이 국물만’ 달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고객에게 떡은 거의 없이 떡볶이 국물만 보내게 되었다.

※ 무엇을 배울까?

참고 한글 맞춤법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 효시는 훈민정음이라 할 수 있고, 현재의 맞춤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하여, 1988년 1월 문교부가 확정·고시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 우리말을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놓은 규범이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총칙을 비롯하여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등 우리말 표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교양 있는 표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국어 생활 성찰

국어 생활을 성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규범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말의 바른 표기를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소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며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다양한 국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어떻게 배울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자주 혼동하는 표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을 확인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생활 속 국어 문제를 해결한다.

참고 한글 맞춤법의 구성 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자모
제3장~제6장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을 조항 설명과 예시어를 함께 제시함.
부록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을 예를 들어 제시함.

다음은 선생님이 한글 맞춤법을 설명하는 수업 장면과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내용이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자주 혼동하는 표기와 띄어쓰기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자.

한글 맞춤법과 올바른 표기

이번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 총칙을 배워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총칙이란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중학교 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배웠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총칙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성	•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의 특성을 가짐. • 어법에 맞도록 하는 표의주의의 특성을 가짐.

먼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을 볼까요.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가 쌓여 있다.

참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 표음주의: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으로, 쓰기에는 편하지만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 표의주의: 어법에 따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법으로, 뜻을 파악하기 쉽지만, 표기가 발음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표음주의를 따르는 경우

주로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경우, 어원을 알기 어려운 경우, 복합어의 구성 요소가 본뜻에서 멀어졌거나 그 쓰임새가 일부에만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표음주의를 따른다.

누군가 구해 놓은 나무가 층층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나무가]를 ‘나무가’라고 표기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쌓여’는 [싸여]라고 발음되는데 왜 ‘쌓여’라고 표기할까요? 만약 소리나는 대로 ‘싸여’라고 표기한다면 나무가 층층이 쌓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무가 천 같은 것에 싸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는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을 볼까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인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왜 띄어쓰기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만약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 봅시다.

흰색연필도사다줘.

친구의 부탁은 ‘흰 색연필’도 사다 달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흰색 연필’도 사다 달라는 것일까요? 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위의 메시지에서도 조사 ‘도’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색연필도’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맞습니다.

이처럼 한글 맞춤법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올바른 표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맞춤법에 어긋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 과제는 모둠별로 자주 틀리는 맞춤법 사례를 조사해 보고,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찾아 올바른 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국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

총칙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특성	• 단어를 단위로 띄어 쓰기를 함. • 조사는 앞말에 붙여 씀.

[참고]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이유

조사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조사는 결합되는 체언이 지니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한글 맞춤법 제2항 해설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이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선생님
수업 과제 - 자주 틀리는 맞춤법 사례 탐구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게시물로 올려 주세요.

공지 사항



선생님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모둠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표기나 띄어쓰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와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찾아보세요. 관련 조항을 찾았다면 모둠원들과 올바른 표기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 주세요.

참고로 한글 맞춤법 조항은 국립 국어원 누리집의 '한국어 어문 규범'이나 우리 교과서의 부록 20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

수업 제안

한국어 어문 규범과 부록에서 사례와 관련된 조항 찾기

국립 국어원 누리집의 '한국어 어문 규범'이나 우리 교과서 부록 203쪽을 참고하여 틀린 맞춤법 사례와 관련된 조항을 직접 찾아보게 할 수 있다.

1 모둠 - 제35항 [붙임 2]



최은재

맞춤법 제대로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인터넷에서 강의 접속은 잘되니?



30분 전에는 잘됐는데?



나도 지금 안 되서 고생 중이야. πππ

우리 맞춤법 왜 이러니? ㅎㅎ

❖ 제35항 [붙임 2] 'ㅂ'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냐'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우리 모둠에서는 '되'와 '돼'가 혼동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되어'의 준말인 '돼'를 써야 하는 자리에 '되'를 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35항의 [붙임 2]에 따르면 위 대화의 '잘됐는데'는 '잘뻘었는데'로, '안 되서'는 '안 돼서'로 고쳐 써야 합니다.

❤ 16



선생님

훌륭해요. 일상에서 자주 틀리는 표기 중 하나이지요. '되'와 '뻘'의 표기도 같은 조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헛갈리면 안 돼요!

참고 한글 맞춤법 제35항

모음 'ㅂ, ㅅ'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ㅂ/ㅅ, 냐/뻘'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보아 → 뻘, 보았다 → 뻘다.

2 모듈 - 제53항



서혜정

틀린 맞춤법, 모른 척하지 않을게요!

내가 그댈 놓아 볼게요. 다신 찾지 않아요.
우연히 그댈 보아도 모른 척할게요.



❖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으)ㄹ거나’, ‘-(으)ㄹ걸’, ‘-(으)ㄹ게’ 등)

발표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즐겨 듣는 이
별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볼게요’, ‘할게요’라
는 표기가 어색해서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제
53항이 있었습니다. 맞춤법이 틀려 더 슬픈 이
노래의 가사는 관련 조항에 따라 ‘볼게요’, ‘할
게요’로 수정해야 합니다.

11



선생님

앗, 선생님도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틀린
부분을 잘 찾았네요. 덧붙이자면, 같은 조항
에서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으)ㄹ까?’,
‘-(으)ㄹ꼬?’ 등의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
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53항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ㄹ까?, -(으)ㄹ꼬?, -(스)ㄴ니까?,
-(으)리까?, -(으)ㄹ꼬냐?

3 모듈 - 제6항



김희성

굳이 왜 틀린 걸 쓰는 거야?



❖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하-’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ㄷ,
ㅌ’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재미를 위해 일부러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
기를 쓰는 이모티콘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에만 몰두하다 보면 올
바른 표기가 무엇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구개음화와 관련된 제6항에 따르면, ‘굳이’는
[구지]로 소리 나더라도 ‘굳이’로 써야 합니다.

12

→ 선생님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구개음화와 관련된 조항을 잘 찾았네요.
조항에 있는 ‘종속적 관계’란 실질 형태소
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
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
계를 의미합니다.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로 ‘같이’, ‘해돋이’ 등이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4 모둠 - 제56항



한지원

맞춤법부터 공부하든지!



❖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예 어제 그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키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예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즐겨 보는 방송의 자막에서도 틀린 표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러던지 말든지’ 역시 잘못된 표기인데요, 제56항에 따르면 위 자막은 ‘그러든지 말든지’로 고쳐야 합니다.

❤ 13



선생님

눈썰미가 좋네요. 잘 찾았어요. ‘-더-’와 ‘-던’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에 그대로 옮겨 전달할 때 쓰이고, ‘-든지’와 ‘-든’은 선택의 의미로 씁니다. 둘의 쓰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56항 해설

1. ‘-더-’와 ‘-던’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로 옮겨 그대로 전달할 때 쓰인다. 이때의 ‘-더-’와 ‘-던’을 ‘-드-, -든-’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오랜만에 만났더니 반갑더라. 선생남도 이제 늙으셨더군요.
그림을 잘 그렸던데 여기에 걸자. 선생님은 교실에 계시던걸.
2. 선택의 의미를 지닌 ‘-든지’, ‘-든’을 과거 경험과 관계된 ‘-던지’, ‘-던’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사과를 먹든지 감을 먹든지 하렴.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5 모둠 - 제19항



박민서

맞춤법을 공부하고 웃음을 되찾았어.



화려한 장식 귀거리 귀걸이
최저가 25,000원
평점 ★★★★★

♡ 찜하기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인터넷 검색 중 ‘귀걸이’와 ‘귀거리’를 같이 표기하는 판매처가 많아 의아했습니다. ‘귀거리’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제19항에 따르면 ‘귀걸이’는 ‘걸다’의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귀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15



선생님

잘 찾았네요.^^ ‘웃음’, ‘실없이’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19항에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본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비’, ‘노름’ 등이 그 사례이니 함께 기억해 둡시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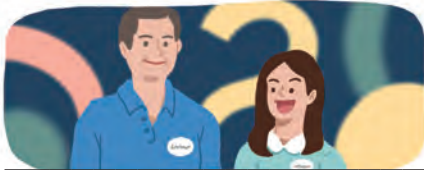
예 너머, 너무, 나마

6 모둠 - 제42항



이은호

띄어쓰기, 너도 잘할 수 있어!



오	래	간	만	에	띄	어	쓰	기	뿐	만	아	니	라	뚝	
부	러	진	발	음	에	도	신	경	썸	그	는	도	전		
세	번	만	에	우	승	을	거	머	워	었다	.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우리말을 겨루는 방송의 문제를 풀어 볼까요? 이 문제의 답은 ‘세 번만에’를 ‘세 번 만에’로 띄어 쓰는 것입니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앞말에 붙여 써야 하지만, 꾸며 주는 말의 뒤에 오는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 만에’의 ‘만’은 ‘세 번’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 19



선생님

‘만’, ‘만큼’, ‘대로’ 등은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만 먹어라.’에서 ‘하나’는 ‘만’을 꾸며 주는 말이 아니라 체언입니다. 이때의 ‘만’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예 꽃이, 꽃마저, 꽃밖에



선생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과제를 수행해 주었어요.

이번 모둠 활동으로 알게 된 한글 맞춤법 조항들은 일상생활에서 틀리기 쉬운 표기나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이니 잘 기억해서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앞으로도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는, 교양 있는 국어 사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 22

앞에서 살펴본 한글 맞춤법 조항을 적용하여 국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해 보자.

1

한글 맞춤법 조항
적용하기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고,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을 적어 보자.

예시 답

가



드디어 이 단원 학습의
(끝이) / 끄치) 보여.

→ 관련 조항: 제6항

나



내일 과학실에서 또
(비요) / (배요).

→ 관련 조항: 제35항

다



너 어제 발표 (잘하던
데) / 잘하든데)?

→ 관련 조항: 제56항

라



네가 사 준 가방 내일
메고 (갈게) / 갈께).

→ 관련 조항: 제53항

마



냉장고에서 (얼음 /
어름)을 찾아보자.

→ 관련 조항: 제19항

바



네가 내 처지가 한번
(되) / (돼) 보렴.

→ 관련 조항: 제35항

사



지금쯤 수정을 (다했
걸) / 다했을걸).

→ 관련 조항: 제53항

아



얼마나 (출던지) / 출든
지) 손이 얼었어.

→ 관련 조항: 제56항

자



나는 (약속한대로 /
약속한 대로) 행동했어.

→ 관련 조항: 제42항

2

표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 적용하기

[참고] 한글 맞춤법 제6항

한글 맞춤법 제6항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의 표기를 규정한 것이다. 구개음화란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ㅟ’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각각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한다. 제6항에서 말하는 ‘종속적 관계’란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참고] 표준 발음법 제5항에서 ‘ㄴ’ 발음의 규정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예 유희[유히]
-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ㅁ]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예]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참고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알아보자.

- ❶ 다음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한글 맞춤법 제6항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그의 말을 곧이 들을 필요가 없다.
- 곧이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시 답 ‘곧’은 실질 형태소인 어근 ‘곧-’에 형식 형태소인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말로,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결합한 것이므로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어야 한다.

- ❷ 제시된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고르고,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예시 답

- ☒ 깎두기
☐ 깎뚜기

- ☐ 합격울
☒ 합격률

- ☒ 무늬
☐ 무니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 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분열(分裂) 등 규율(規律), 선율(旋律) 등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다만, ‘ㄱ, 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3

띄어쓰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조항 적용하기

도움말

(가)와 (나)에 쓰인 ‘만큼’의 품사를 판단한 뒤, 앞말과 띄어쓰기 여부를 생각해 보고 이를 탐구 결과에 적는다.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참고하여 띄어쓰기의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자.

① 다음은 한 학생이 띄어쓰기에 대해 탐구한 과정이다. ‘탐구 결과’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자.

탐구 주제	다음 문장에서 ‘만큼’은 앞말과 띄어 써야 할까? (가) 현수는 연주가 건네주는만큼 받아 왔다. (나)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그녀만큼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탐구 과정	• ‘만큼’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만큼[만큼]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Ⅰ] 「의존 명사」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명사 「1」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Ⅱ] 「조사」 「1」 ((체언의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한글 맞춤법 조항을 찾아보면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탐구 결과	예시 답 (가)의 ‘만큼’은 ‘건네주는’의 수식을 받고 있고, 어미 ‘-는’ 뒤에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건네주는 만큼’이라고 써야 한다. (나)의 ‘만큼’은 ‘그녀’라는 체언 뒤에 붙은 조사이기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그녀만큼’이라고 써야 한다.

② ①의 탐구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문장에서 띄어 써야 할 부분에 √ 표시를 해 보자.

예시 답

이곳에서 지[√]낸지 벌써 일[√]년이 지났다. 의지할 존재는 강아지뿐이지만, 혼자인대로 이곳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

4

생활 속 국어 문제
해결하기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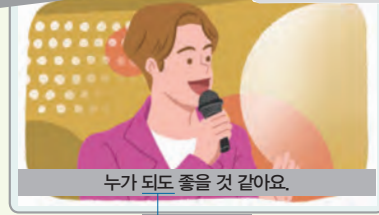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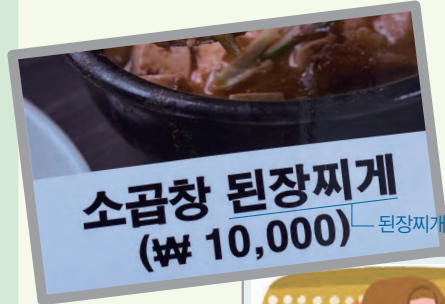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곳에서 잘못된 맞춤법 표기 사례를 찾아본다.

- 간판이나 표지판
- 신문이나 잡지, 지하철의 광고
- 인터넷 뉴스의 표제어나 기사문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자막

지도 가이드 텔레비전 자막이나 간판, 기사 등 우리 주변에서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기 사례를 모둠별로 찾아보고, 올바른 표기로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둠별로 우리 주변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면서 생활 속 국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예시 답



되어도

OO일보

2000년 00월 00일 (목)

“맛집이에요!” — 맛집이에요
후기만 보고 갔다가…….

최근 맛집 소개 애플리케이션 OO에서는 ‘광고성 맛집 후기’를 막으려고 방문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음식점 신뢰도를 ……

잘못된 한글 맞춤법 표기 사례



잘못된 표기 사례



□□일보

2000년 00월 00일 (수)

OO 식품, 6%대 급락! “웬일이니?”

OO 식품이 사흘째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OO 식품은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신제품의 판매가 부진하여 …….

올바른 표기

여기 있으면 어떡해!

순댓국

웬일이니?

5

국어 생활
성찰하기

도움말

믿을 만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여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표현을 알아보면서 평소의 표기 생활을 점검하고 국어 생활을 성찰해 본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였거나 친구들과 주고받은 글을 ‘맞춤법 검사기’로 점검해 보고, 국어 생활 성찰 일지를 써 보자.

- 1 <예시>와 같이 자신이 쓴 글이나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맞춤법 검사기’로 점검해 보자.

예시

맞춤법 검사기

원문	교정 결과
오늘 <u>민망한</u>일이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반 친구가 <u>데뜸</u> 나에게 휴대 전화를 내밀었다. <u>전화 번호</u>를 알려달라는 관심의 <u>표현일</u>거로 생각하여 거절하였더니, 그 친구가 <u>어의없다</u>는듯 “아니, 너 휴대 전화 떨어뜨렸다고.”라고 하는 것이다.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u>행동인</u>줄 알았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 전화를 주워 준 것이었다니! 순간 <u>멋적어서</u> 얼굴이 <u>새빨개지</u>고 말았다.	오늘 민망한 일이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반 친구가 대뜸 나에게 휴대 전화를 내밀었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관심의 표현일 거로 생각하여 거절하였더니, 그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 “아니, 너 휴대 전화 떨어뜨렸다고.”라고 하는 것이다.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 전화를 주워 준 것이었다니! 순간 멋적어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예시 답

원문

오늘 강아지 보러 너희 집 가도 돼?

안 돼. 대신 사진 보내 줄게. 찐! 귀여운 강아지예요!

고마워.

검사하기

교정 결과

오늘 강아지 보러 너희 집 가도 돼?

안 돼. 대신 사진 보내 줄게. 찐! 귀여운 강아지예요!

고마워.

- 2 ①의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되돌아보며 성찰 일지를 써 보자.

예시 답 맞춤법 검사기로 친구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예요’라고 써야 할 때도 ‘예요’를 쓰고 있고, ‘안 돼’를 ‘안 되’라고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아지예요’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이에요’의 준말인 ‘예요’를 써야 하고, ‘안 되’에서 ‘되’는 어미 없이 어간만 쓰인 것이므로 어간 ‘-어’를 결합하여 ‘안 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 나의 평소 국어 생활을 점검해 보니 평소 잘못 알고 있었던 맞춤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

.....

.....

04

주제 통합적 읽기

(가) 인공지능, 예술에 도전하다 · (나) 예술하는 인공지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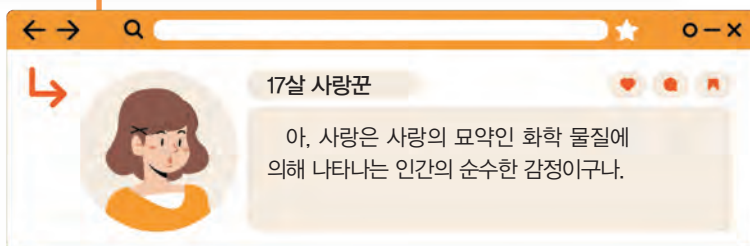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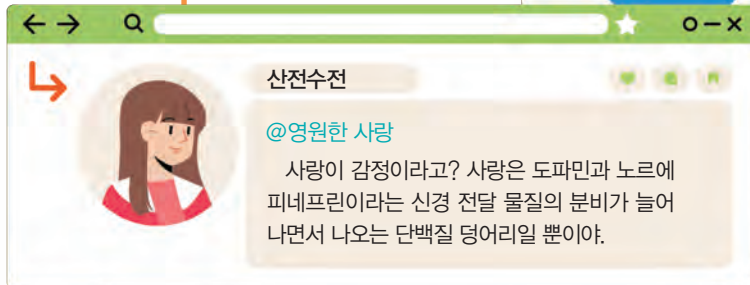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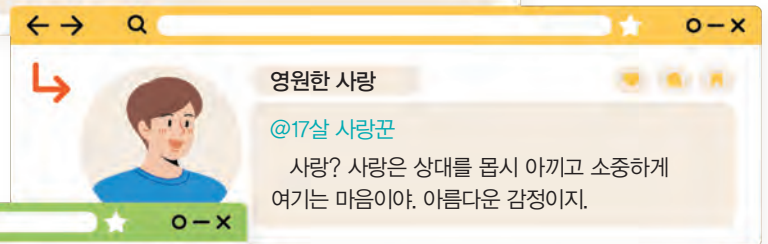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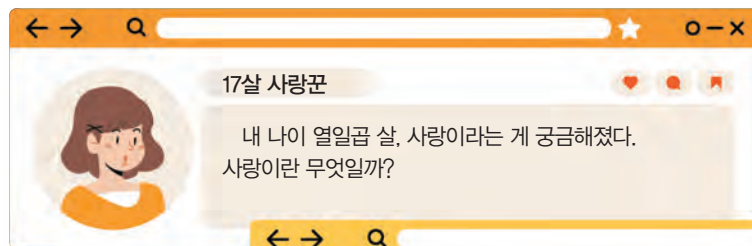
주제 통합적 읽기

생활  발견

다음은 보고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는 것의 효과를 이야기해 보자.

학습 목표

-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동일한 화제에 대해 관점과 형식이 서로 다른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 논증 요소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다.



- 예시 답**
-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 사랑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통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무엇을 배울까?

주제 통합적 읽기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을 지닌 독서 자료를 비교하며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이다. 주제 통합적 읽기는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정보를 수용하고 주제를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나아가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가치와 효과} 자신만의 관점을 수립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견해를 재구성해 보는 활동을 통해 독서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주제 통합적 읽기를 위한 활동}

논증하는 글 쓰기

논증하는 글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의 이유를 들어 ^{논증의 목적}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글이다.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논증 요소} 주장, 근거, 이유,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의 논증 요소와 ^{대표적인 논증 방법} 연역, 귀납 등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 어떻게 배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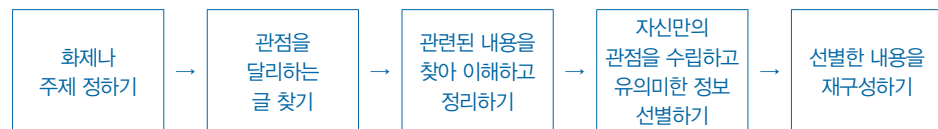
동일한 화제를 다룬 서로 다른 두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화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한다.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논증하는 글을 쓴다.

참고 |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

주제 통합적 읽기의 절차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화제나 주제, 독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제 통합적 읽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의 학습 계획

이 단원에서 나는

- 예시 답** •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을 비교하며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것이다.
•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논증하는 글을 쓸 것이다.

■ (가)와 (나)는 인공지능 예술을 보는 서로 다른 견해의 글이다.
두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어 보자.

인공 지능 예술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인공 지능의 창작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 보자.

예시 답 •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미술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한 번의 붓질 없이 만들어진 그림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한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다. 이 작품은 문장을 입력하면 이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그린 것이다.

제재 선정의 이유

- 인공 지능의 창작물을 대하는 관점을 비교하며 주제 통합적으로 읽어 볼 수 있는 두 글을 선정하였다.
- 종이책과 전자책의 특성이 각각 드러나 있어 서로 다른 두 형식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글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인공 지능, 예술에 도전하다

구본권

제재 해설 「인공 지능, 예술에 도전하다」는 인공 지능 화가인 오비어스가 그린 「에드몽 드 벨라미」가 고가에 낙찰된 사건을 설명하고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글쓴이는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주목하여 인공 지능의 창작물과 인간의 예술품은 구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글을 통해 인공 지능의 창작물과 예술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글쓴이가 인공 지능 화가의 작품이 높게 평가된 사례를 제시한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예술 작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 위함이다.

서론 2018년 10월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인공 지능이 창작한 그림이 최초로 출품되

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개발

한 인공 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이다. 예상 낙찰가는 1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실제 경매에서는 수집

가들이 경쟁적으로 입찰 가격을 올리면서

「: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높은 관심을 보임.

예상가의 40배가 넘는 43만 2,500달러(한

화 약 5억 2,000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졌다. 이 작품은 가상의 남자를 그린 초

상화로, 눈, 코, 입과 얼굴 윤곽을 모호하게 묘사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

였다. 「오비어스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서양화 작품 중에서 초상화를 데

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미지를 분석해 초상화 구성 요소를 학습한 뒤 이를 창

작해 냈다. 이날 크리스티 경매에는 앤디 워홀의 작품도 출품되었는데, 워홀

작품의 낙찰가는 7만 5,000달러(한화 약 9,000만 원)였다. 「미술품 경매 전문가

들이 인기 높은 팝 아트 거장의 작품보다 인공 지능 작품의 가치를 여섯 배 가

량 높게 평가한 것이다.」

세계적 미술 경매 시장에서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유명 작가 작품의 몇 배 가

격으로 판매된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인공 지능 예술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는 기대를 주었다. 또한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소장가

투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무수히 많은 창작물 가운데 가치 있

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주요 경로 중 하나는 전문가들과 감상자들이 내리

는 평가인데, 크리스티 경매가 그 대표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직업과 직무가 기계로 대체될



▲ 오비어스, 「에드몽 드 벨라미」(2018)

✓ 새로 알게 된 어휘에 표시

□ **입찰(入札)**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앤디 워홀(Andy Warhol)** 미국의 화가, 영화 제작자. 미국 팝아트계를 선구적으로 이끈 대표적 작가.

□ **거장(巨匠)** 예술, 과학 따위의 어느 일정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

□ **소장(所藏)**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함.

구본권(1965~)

언론인. 디지털 인문학자. 인공 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 읽기에 관한 책을 주로 썼다.

「: 크리스티

세계적 미술 경매 시장에서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유명 작가 작품의 몇 배 가

격으로 판매된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인공 지능 예술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는 기대를 주었다. 또한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소장가

투자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무수히 많은 창작물 가운데 가치 있

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주요 경로 중 하나는 전문가들과 감상자들이 내리

는 평가인데, 크리스티 경매가 그 대표적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직업과 직무가 기계로 대체될

▶ 인공 지능의 창작물 출현과 이에 대한 높은 관심

▶ 예술 작품으로서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기대

-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가 대두되었고 창의성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창의성은 인간만의 능력이므로 기계는 반복적인 일, 인간은 창의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구현해 내는 기술적 수준을 보면 창의성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 오비어스의 등장 이후에도 인간의 창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술과 창작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그에 필적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 ▶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
- 5 서론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관심과 기대
- 본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완성도의 창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예술 작품과 구별될 것이다.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희소성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가 큰 작품도 희소성이 없으면 예술 작품이 되지 못한다. 예술은 인간의 의미 부여 행위인데, 인간은 무한한 것이

글쓴이가 창의성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고집하기 어렵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예술과 창작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에 필적할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 필적(匹敵) 능력이나 세력이 엇비슷하여 서로 맞섬.
- 희소성(稀少性)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

독해 점검

1. 최근 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을 보면 창의성은 인간만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 X
2. 글쓴이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인간의 예술 작품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 ○

핵심 예술 작품의 희소성

창작자의 삶과 의도, 생애와 정신이 들어간 작품은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을 가짐.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삶과 의도, 생애와 정신이 담겨 있지 않음.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희소성'이 없으므로 예술 작품이 아님.

- 기반(基盤)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만무(萬無)

아닌 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존하며 소장하고 싶어 한다. 희소하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즉 유한성을 의미한다. 보존하고 싶은데 얼마 없는 것, 즉 희소성을 가지는 것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다. ▶ 예술 작품의 요건인 희소성

희소성 = 유한성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필요함.

이때 예술 작품의 희소성은 그 작품을 만들어 낸 창작자의 삶과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창작자의 숨결이 깃든 작품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술 작품이 갖는 고유한 분위기인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이 아우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살았던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한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반 고흐의 예술 작품에는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한 아우라가 담겨 있음. 열정적인 작품들은 불우한 여건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추구를 멈추지 않았던 예술 작품이 창작자의 삶에 기반을 두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

희소성과 유한성이 있음.

그의 삶과 따로 떼어서 이해되거나 평가되지 않는다. 이처럼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에 기반하여 매겨진다. ▶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을 두는 예술 작품

따라서 인공 지능이 고흐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뛰어난 완성도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그 그림이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리는 만무하다. 오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삶과 의도, 생애와 정신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임.

비어스의 그림이 높은 값에 팔렸다지만,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일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해도 그 그림에서는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결론 사진술이 등장했다고 해서 회화의 영역과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진
등장 당시 예술을 위협하는 새로운 기술로 여겨짐.」: 사진술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함.

5 술 이후의 회화는 사진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화풍의 창조를 견인해 더욱 다양한 예술 경향을 만들어 냈고, 사진술을 이용한 장르도 생겨났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도구 삼아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차별화되는 장르를 개척함으로써 예술의 영역을 확장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인간의 예술은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결론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창작한 예술 작품의 지위

▶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예술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 구분론,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글쓰기가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판단하는 데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예시 답 그림에 담겨 있는 창작자의 삶과 의도, 생애와 정신에 기반한 희소성을 작품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

□ **회화(繪畵)**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 내는 조형 미술.

□ **견인(牽引)** 끌어서 당김.

제재 개관

갈래	논설문
성격	논증적, 설득적
제재	인공지능의 예술
주제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움.
특징	- 인공지능 화가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논지를 전개함. -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의성과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구분하여 설명함. - 예술 작품의 요건을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

제재 구조도

서론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관심과 기대
본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결론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창작한 예술 작품의 지위

독해 점검

- 예술 작품이 갖는 고유한 분위기인 ()는 작품의 창작자의 삶과 의도에 기반한다. → 아우라
- 글쓰기는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인간의 예술이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다. → ○

나 예술하는 인공지능

최선주

제재 해설 「예술하는 인공지능」은 전자책에 실린 글로,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글쓰이는 존 케이지의 음악을 예로 들며, 인공지능의 창작물도 존 케이지의 음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와 우연성을 바탕으로 창작되기 때문에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글을 통해 인공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서론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을까? 인공지능 창작의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

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예술 작품 속에서 번
뜩이는 창의성을 마주하고 미적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창의성은 정해진 절차나 과정에 따라 도출되

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나오는 것이라고 여긴다. 실제로 창의적인 생각은 뜻밖

갑자기, 우연히 떠오르는 것

의 순간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창의성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우연성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

이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 예술 작품의 특징인 창의성과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

그런데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의 우연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과는 그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

의미가 다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우연을 무작위와 비슷한 의미로 생각한다.

주사위 놀이를 우연의 확률 게임이라고 부르거나, 원숭이들이 우연히 「햄릿」을

주사위의 숫자가 무작위로 나오는 주사위 놀이를 우연의 확률 게임으로 칭함.

어쩌다가

쓰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창의성의 조건으로 언급되는

우연성은 ‘무작위의’,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건들이 어찌다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은 통상적인 우연의 의미와 다름.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의미가 아니다. ▶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은 통상적인 우연과 의미가 다름.

「진화론자들이 원숭이 여러 마리를 데려다가 타자를 치게 하면 언젠가 「햄릿」

「」: 무작위한 우연성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는 사례

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

들은 단어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우연한 발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 지식을 바탕으로 한 우연성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사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도 세균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이 두 사례는 창의성의 조건이 되는 우연성은 무작위성이 아니라는 것

을 말해 준다.

▶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은 무작위성이 아님.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사물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인지하는 등의 복잡한 지적

창의성은 지적 구조를 바탕으로 함.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란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부터 창의성이 나옴.

생각을 결합해 재생산한 결과이며, 창의성의 조건이 되는 우연성은 지식이나

생각의 결합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다. ▶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은 지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함.

서론 통상적인 우연과 뜻이 다른, 창의성의 조건이 되는 우연성

예시 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연이라는 말은 무작위성을 가리키지만,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은 지식이나 생각의 결합 과정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연’이라는 말과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의 ‘우연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새로 알게 된 어휘에 표시

- **도출(導出)**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 **불현듯**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
- **통상적(通常的)**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것.
- **무작위(無作爲)** 통계의 표본 추출에서, 모집단의 각 원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함.

최선주(1993~)

미디어 문화 예술 채널 편집자. 기술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며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본론 우연성을 탐구한 많은 예술가 가운데 가장 대표

적인 인물은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다. 케이지
는 우연성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존 케이지에 대한 예술적 평가
현대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의 작품에

- 5 는 인공 지능 창작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실
존 케이지의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
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식이나 생각
우연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그의 작품
지식이나 생각의 우연적 결합
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인공 지능 창작의 가능성을 내포한 존 케이지의 예술 작품

케이지는 ‘우연성 음악’을 표방하면서 우연성이 작용하는 여러 음악을 작곡

- 10 하였다. 이들 음악에서 케이지는 우연성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첫 번째는 주사위, 동전 던지기, 난수표 등을 이용해 악보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케이지의 도형 악보라고 불리는 세모, 네모, 선 등의
기호만 그려져 있는 도형 악보를 연주자에게 주고 연주자가 자유롭게 기호를
해석하고 우연적인 영감을 받으면서 연주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작곡가
15 가 각기 분리된 여러 단편의 악보를 주고 연주자가 기분에 따라 연주 순서를 정
하게 하는 것이다.

▶ 케이지가 우연성을 구현한 세 가지 방법

케이지의 많은 우연성 음악 가운데 「상상 풍경 4[Imaginary Landscape
No.4]」는 작가가 통제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작품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는 과정은 작가의 개입 없이 우연성을 통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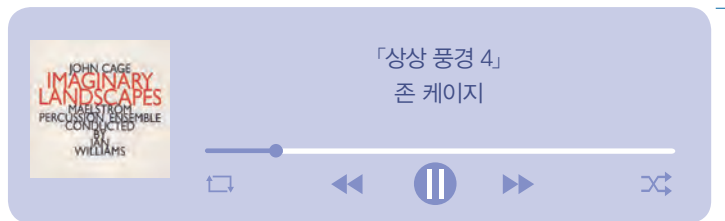
작품을 연주하려면 열두 대의 라디오에 각각 두 명씩, 총 스물네 명의 연주자
20 가 필요하다. 「연주자는 악보에 따라 라디오 주파수, 볼륨 등을 조절하는데, 이
「」: 우연성이 작용하는 과정
들이 보는 악보는 케이지가 동전을 던져 작곡한 열두 개의 각기 다른 악보이
다. 또한 연주 장소마다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 존 케이지(John Cage, John Milton Cage Jr. 1912~1992)

글 안에서 음악을 제시하는 것
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 이 글은 종이책이 아
니라 전자책에 실려 있으므로
음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상상 풍경 4」의 음악

전자책의 특성
- 음악 첨부가
가능함.

- **내포(內包)**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 **내재(內在)** 어떤 사물이나 범
위의 안에 들어 있음.
- **난수표(亂數表)**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각 숫자가 나오는 비율이
같도록 무질서하게 배열한 표.
- **영감(靈感)** 창조적인 일의 계기
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독해 점검

1. 창의성의 조건이 되는 우연성은 통상적인 우연의 뜻과 같다. → X
2. 존 케이지의 작품에는 인공 지능 창작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소리가 들릴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상상 풍경 4」에서 우연성은 케이지가 작곡하기 위해 동전을 던질 때,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연주할 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라디오에 의해 발생한다. 이 작품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라디오 소리에는 케이지뿐만 아니라 연주자, 관객도 개입할 수 없다.

▶ 존 케이지의 음악에 우연성이 작용하는 과정

본론 지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우연성과 우연성 음악을 표방한 존 케이지

결론

「상상 풍경 4」를 비롯한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과 오늘날의 인공지능 창작물은 예술 작품으로 여겨진다.

은 창작 과정에서의 공통점이 있다.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작에 유효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방법이 우연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창작하는 인공지능은 기존의 음악이나 그림을 데이터로 사용하고 내부 알고리즘에 따라, 다시 말해 확률론적 프로그래밍에 의해 우연성을 발생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선 보인다.

케이지의 음악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 과정에서의 공통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옴.

▶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 과정에 우연성이 작용하는 과정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과 오늘날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예시 답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작에 유효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우연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개입(介入)**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듦.

□ **알고리즘(algorithm)**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인간의 창의성도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재생하는 우연적이고도 기계적인 행위 속에서 발생한다. 물론 기계적 우연성과 보편적 의미에서의 창의성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창의성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인공 지능 역시 사람처럼 데이터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서로 다르지 않음. ▶ 인공 지능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이 유사한 점이 있음.

인공 지능의 결과물이 창의적으로 보이고, 인공 지능을 만든 사람조차 왜 그 인공 지능의 결과물이 지닌 창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인공 지능의 결과물이 창의성의 조건인 우연성에 기반을 두는 경우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밝히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 인공 지능을 창의적이라고

- 5 부를 수밖에 없다. 인공 지능의 결과물을 인간의 예술 작품과 완벽하게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공 지능으로부터 우연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가능성을 글쓴이의 핵심 주장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 인공 지능 창작물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음.

결론 우연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 지능

– 최선주, 『특이점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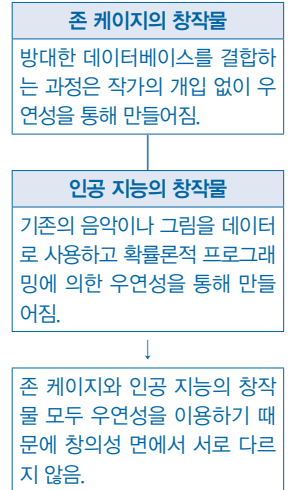
제재 개관

갈래	논설문
성격	논증적, 설득적
제재	인공 지능의 예술
주제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특징	• 청각 자료를 첨부함. • 흔히 말하는 우연성의 의미와 창의성을 말할 때 우연성의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함. • 존 케이지의 창작 과정과 인공 지능의 창작 과정을 비교하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함.

제재 구조도

서론	통상적인 우연과 뜻이 다른, 창의성의 조건이 되는 우연성
본론	지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우연성과 우연성 음악을 표방한 존 케이지
결론	우연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 지능

핵심 존 케이지와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서 발견한 창의성



독해 점검

1.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과 오늘날의 인공 지능 창작물은 창작 방법이 ()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우연성
2. 인공 지능은 데이터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다. → ○

앞에서 읽은 두 글의 관점을 비교한 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논증하는 글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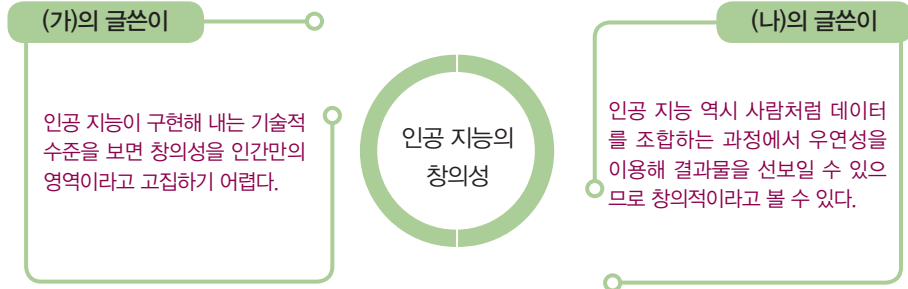
1

주제 통합적으로 읽으며
두 글 비교하기

(가)와 (나)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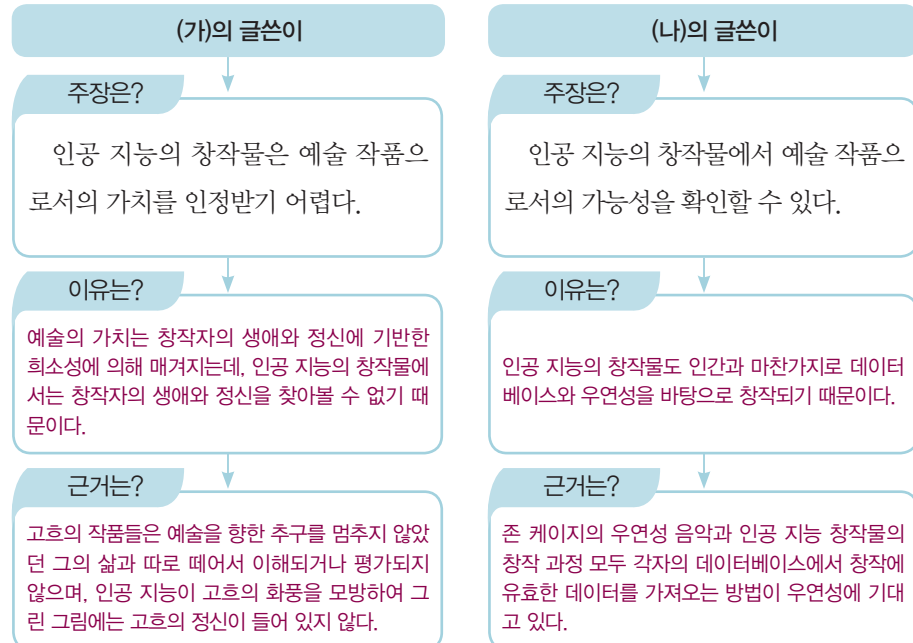
① 인공지능의 창의성에 대한 (가)와 (나)의 글쓴이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예시 답



②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가)와 (나)의 글쓴이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예시 답



2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 재구성하기

【참고】 유의미한 정보

유의미한 정보는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거나 견해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유의미한 정보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관습, 공동체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가)와 (나)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해 보자.

① (가)와 (나)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해 보자.

예시 답

(가)에서 선별한 유의미한 정보

- 창의성을 인간만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인간의 의미 부여 행위를 통해 정해진다.
-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에 기반한 희소성에 의해 매겨진다.
- 인간은 인공 지능을 도구 삼아 인공 지능의 창작물과 차별화되는 장르를 개척할 것이다.

(나)에서 선별한 유의미한 정보

- 창의성의 조건으로 언급되는 우연성은 무작위성과 의미가 다르다.
- 창의성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이나 생각을 결합해 재생산한 결과로, 우연성이 작용한다.
- 케이지의 예술 작품은 우연성에 기반을 둔다.
-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서 우연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①에서 선별한 정보 가운데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예시 답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가)는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에 기반한 희소성을 기준으로, (나)는 우연성에 기반을 둔 창의성을 기준으로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한다.

③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해 보자.

예시 답



- 글을 읽기 전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어떠했는지 떠올려 본다.
- (가)와 (나)에서 선별한 유의미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해 본다.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나의 생각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미술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때문에 인공 지능 창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와 (나)를 읽은 후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나)에서는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이나 생각을 결합해 재생산한 결과로 인간이 창작한 예술 작품처럼 창작 과정에서 우연성이 작용하기에 예술성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공 지능이 작품을 창작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인간의 작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고유의 창의성에 따른 창작물이 아닌, 인간이 제공한 정보의 조합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는 창작자의 생애와 정신에 기반한 희소성이 없으므로 예술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술 작품으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3 논증하는 글 쓰기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증하는 글을 써 보자.

① 글을 쓰기 위한 쓰기 맥락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

글의 목적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함.
글의 주제	인공 지능의 창작물은 창의성이 없다.
예상 독자	우리 학급 친구들
글을 실을 매체	우리 학급 친구들이 이용하는 누리집 게시판

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한 뒤,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수집한 자료를 선별해 보자.

예시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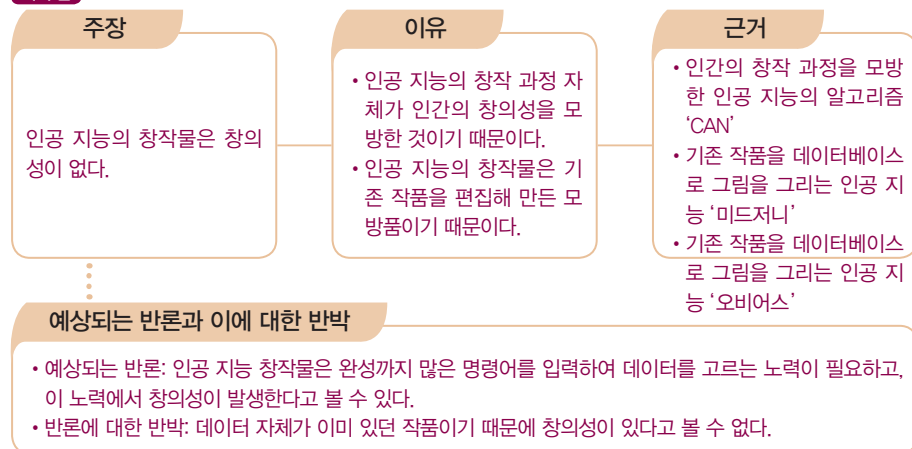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인공 지능의 알고리즘 'CAN'의 원리	인공 지능 '미드저니'의 창작 과정	인공 지능 '오비어스'의 창작 과정

Q 논증 요소

논증 요소에는 주장과 그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있다.

③ 선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증 요소를 고려하여 쓸 내용을 생성해 보자.

예시 답



💬 도움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려면 짜임새 있게 글의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표현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④ ③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해 보자.

예시 답

서론

예술 작품은 창의성을 전제로 하는데,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는 창의성이 없으므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본론

-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한 것이다.
-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기존 작품을 편집해 만든 모방품이다.

결론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창의성이 없다.

🔍 논증 방법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며, 귀납은 충분한 양의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한 뒤 그 결론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참고▶ 논증 방법

논증 방법에는 연역, 귀납 외에도 인과, 유추 등이 있다. 인과는 어떤 사실이 다른 사실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논증 방식이다. 유추는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식이다.

⑤ ④에서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역과 귀납 등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논증하는 글을 써 보자.

예시 답

인공지능의 창작물인 「에드몽 드 벨라미」가 세계적인 미술 경매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 받으며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미적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성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 논란의 근본에는 '창의성'이 있다. 예술 작품은 창의성을 전제로 하는데,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는 창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창의성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릴 때 알고리즘인 'CAN'을 사용한다. CAN은 미술사에서 유명한 작품들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알고리즘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여 예술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즉,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 또한 창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창의성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기존 작품을 편집해 만든 모방품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에드몽 드 벨라미」는 인공지능인 '오비어즈'가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초상화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또한 인공지능인 '미드저니'가 기존 작품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조합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기존 작품을 편집해 만든 모방품일 뿐, 그 자체에 창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창의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명령어를 입력하며 데이터를 고르는 노력이 들어가고, 이 노력에서 창의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데이터 자체가 기존의 작품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고르는 노력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는 기존 작품을 조합한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근본에는 창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6 5에서 쓴 글을 다음 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글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보자.

예시 답 생략

평가 기준	평가
주장을 명료하게 밝혔는가?	☆☆☆☆☆
주장, 근거, 이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
이유와 근거가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가?	☆☆☆☆☆
연역, 귀납 등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가?	☆☆☆☆☆

|||

[수정·보완할 내용]

어휘력 키우기

다음 글자들을 조합하여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완성해 보자.

적

무

소

영

위

작

장

필

감

①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함.

소장

② 능력이나 세력이 엇비슷하여 서로 맞섬.

필적

③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영감

④ 통계의 표본 추출에서, 모집단의 각 원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함.

무작위

05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귀자

작품 선정 취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도시 변두리 주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로, 이웃을 막연하게 불신하고 의심하던 주인공 부부가 점차 그를 이해하고 그의 처지에 공감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며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생각하는 태도를 배우기에 적절하기에 이 단원의 제재로 선정하였다. 작가가 문학 작품에 제시해 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독자인 학생들이 타인의 삶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작품 연구

이 작품은 서울 인근에 위치한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1980년대 도시민들의 삶을 그린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11편 중 하나이다. 이 작품 속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아 원미동에 집을 장만한 도시민이다. '그'와 아내는 욕실 수리를 맡은 '임 씨'의 본업이 연탄장수라는 것을 알고는 그의 수리 실력을 믿지 못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임 씨'가 욕실뿐 아니라 욕실까지 꼼꼼하고 말끔하게 수리하고 수리비도 견적보다 오히려 적게 받자, 공연히 '임 씨'를 불신했던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떼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임 씨'의 말을 들은 '그'는 가난한 도시 빈민인 '임 씨'의 슬픔을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1980년대의 경제 성장에서 소외된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으며,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 소개

1955년 7월 17일 전북 전주 태생. 원광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8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단편 「다시 시작하는 아침」, 「이미 닫힌 문」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주로 일상적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도시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들을 모아 1985년에 창작집 『귀머거리씨』를 출간하였다. 이후 작품집 『원미동 사람들』(1987),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1989), 『슬픔도 힘이 된다』(1993),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1993) 등과 장편 소설 『바빌론 강가에서』(1985), 『희망』(1990),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1992), 『천년의 사랑』(1995), 『모순』(1998) 등을 간행하였다. 유주현문학상(1989), 이상문학상(1992) 등을 수상하였다. 특히 1992년도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중편 소설 「숨은 꽃」은 세계사의 격변기에 처한 한 작가의 갈등과 새로운 의지를 특유의 섬세한 문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2004



작가 소개

양귀자(1955~) 소설가. 일상적 현실을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을 창작하였다. 작품집으로 『원미동 사람들』,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슬픔도 힘이 된다』 등이 있다.

PPT 작가 소개



-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오해했다가 미안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볼까요?
- 경제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Q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오해했다가 미안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볼까요?

[지도 방안] 작품 내의 갈등 상황과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미리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본문 학습 시에 인물의 심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려는 물음이다. 자신의 경험과 작품 속 '그'의 상황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한다.

Q 경제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지도 방안] 작품 인물인 '임 씨'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물음이다. 작품 속에서 '임 씨'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는 '임 씨'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주목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작품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도시 변두리 주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작중 인물이 타인을 이해해 가는 과정과 태도의 변화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

작품 개관

갈래	현대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제재	도시 변두리를 배경으로 한 중산층 소시민과 빈민층의 삶
주제	중산층의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과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반성
특징	• 실제 존재하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소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함. • 비속어와 방언을 활용하여 사실성을 높임.

작품 구조

발단	은혜네는 새로 장만한 집의 목욕탕 수리를 위해 지물포 주인에게 임 씨를 소개 받음.
전개	‘그’와 아내는 임 씨가 공사비를 부풀려 받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욕상 방수 공사까지 부탁하지만 임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함.
위기	‘그’는 생각보다 적은 공사비를 요구하는 임 씨를 보면서 임 씨를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절정	임 씨는 형제 슈퍼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에게 비 오는 날이면 연탄값을 떼어 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을 만나기 위해 가리봉동에 간다는 사연을 말함.
결말	임 씨의 사연을 듣게 된 ‘그’는 도시 빈민인 임 씨의 처지에 공감함.

💡 임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시 답안] 임 씨의 숨씨가 뛰어나고 매우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생각과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 씨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이 ‘옹이’의 방언. ‘굳은 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작품 감상 포인트

- 인물: ‘그’는 도시에 사는 소시민으로, 소심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인 인물이자 사려 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물임. 도시 빈민의 전형인 임 씨는 욕상 공사를 꼼꼼히 수행하고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인물임. ‘그’의 아내는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로, 임 씨를 의심하며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지급하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계산적이며 급전적 문제에 민감한 인물임. 스웨터 공장 공장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도 연탄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임.
- 시간: ‘그’의 의뢰로 임 씨는 욕실과 욕상 공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임 씨를 의심하던 ‘그’와 아내는 임 씨의 정직함에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함.
- 배경: 1980년대 서울 주변 소도시의 한 동네(부천시 원미동)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양귀자

앞부분 줄거리 >> 셋방살이를 하던 ‘그’의 가족은 처음으로 연립 주택을 장만해 부천시 원미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 집의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자 지물포 주인의 소개로 임 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긴다. ‘그’와 아내는, 원래 연탄 장수인데 여름에만 이런 공사 일을 한다는 임 씨가 부풀린 견적으로 자기들을 속이려 한다고 의심한다. 목욕탕 수리를 끝낸 뒤 더 손볼 데가 있으면 말하라는 임 씨에게 ‘그’와 아내는 그간 미뤄 오던 욕상의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전개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 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 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꼼꼼하고 성실한 임 씨의 모습』 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 놓은 곳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흠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 욕상 공사에 완벽을 기하는 임 씨

몇 번씩이나 욕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임 씨가 자신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임 씨가 예상보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구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 드려야지요.”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려는 태도, 책임감이 강한 임 씨의 성격』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¹의 대가 오래 세월 성실하게 노동해 온 결과로 얻은 것이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였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임 씨가 지닌 장인정신에 대한 예찬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전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
^{임 씨에 대한 오해}졌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들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
^{돈이 아까워 일부러 옥상 방수 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음.}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05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여
 똥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옥상 방수 공사}만들어 시킨 일
 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 임 씨가 밤늦게까지 옥상 공사를 하자 심적 부담을 느끼는 아내

위기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 놓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
^{임 씨에게 미안함을 느껴서}의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 씨는 여덟 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

10 부에게 미안해하였다.
^{임 씨의 착하고 순박한 성격이 드러남.}“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 상대방을 배려하는 임 씨의 성격이 드러남.}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구,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 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남이 한 일에 대해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널 하고 쉬었다 하모 좋을 끼고만 일

15 무서븐 줄 모르는 걸 보이 앞으로는 잘살 끼요.
^{성실한 태도에 대한 칭찬과 덕담}노모의 덕담을 임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임 씨의 예의 바른 태도가 드러남.}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꼽아서 못 보지만 그렇기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마는.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이 좀 쉬었다 가소.”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 씨는 그가 부어 주는 술을 두 손으로 항감히
^{임 씨의 공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음.}

20 받쳐 들고 조심스레 목을대로 넘겼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오.”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 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웬지 괴롭겠다
^{임 씨의 고단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 칠을 하는 연탄
^{『』: 임 씨의 생활에 대한 요약적 제시}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임 씨의 본업}손이 팔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 사내의 앞
 25 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지요? 저는 토끼띠, 서른여섯 아십니까?”

임 씨가 서른여섯에 토끼띠라면 그는 서른다섯의 용띠였다. 옆에 앉아서 지갑
^{사실은 ‘그가 임 씨보다 한 살 어렵.}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열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
 30 로쳤다.

핵심

제목의 의미

표면적	임 씨가 일할 수 없는 날 에는 때인 돈을 받기 위 해 가리봉동에 가야 한 다는 의미
이면적	• 임 씨의 고단한 삶을 나 타냄. • 당대 도시 빈민층이 겪 는 고통의 상징



‘그’의 아내가 안절부절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견적이 과하다고 생
 각해서 부러 만들어 시킨 옥상 일
 을 늦게까지 성실하게 해 주는 임
 씨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
 문이다.

전개

견적을 부풀렸다고 의심한
 ‘그’와 아내가 일부러 맡긴
 옥상 방수 공사까지 성실하
 게 마무리하는 임 씨

우정 ‘일부러’의 방언.
 부러 실없이 거짓으로.
 앵꼽아서 ‘아니꼬워서’의 방언.

핵심

임 씨가 수정한 견적서의 기능

- 임 씨의 정직함과 착한 심성을 드러냄.
- '그'와 아내의 소시민성, 속물 근성을 부각함.

💡 '그'와 아내는 임 씨가 견적서를 다시 달라고 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예상했을까?

(예시 답안) 옥상 방수 공사를 빌미로, 애초 견적보다 더 많은 돈을 청구하기 위해 금액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임 씨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고용된 것을 알게 되면 속이 상할까 봐 배려해 주는 거짓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중략 부분 줄거리 >> 아내가 공사비를 다 내기 아까워하는 듯하자 '그'는 견적대로 비용을 치르길 속으로 빈다.

“사모님. 내 뽀아 드린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돈이 좀 들려질 겁니다.”

달라질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05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과다한 금액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

잠깐 긴장하였다.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엮으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양심적인 모습
긋고 하였다. 10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 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자신이 속물적 근성을 지녔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15

」: 처음에 견적이 많이 나온 이유와, 견적이 수정된 이유 및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하는 임 씨의 모습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뽐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
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
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볼펜 심으로 쿡쿡 찌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 20
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
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뻘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오해에 기반한 예상과 달리 정직하고 양심적인 임 씨의 청구에 부끄럽고 망연한 기분이 되었음.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최초 견적 십팔만 원에서 많이 줄어든 견적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견적서
쪽이 더 심했다. 그녀는 분명 칠만 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25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폰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
옥상 방수까지 한 것에 비해 금액을 너무 적게 청구하자 임 씨에게 미안해하고 있음.
들었다. 30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 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
다가…….”
넉넉한 인심을 드러내는 인간적 품모

05 “서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는 서비스도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속물성과 대비되는 임 씨의 정직함과 순수함 앞에서 심한 자괴감을 느낌.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

10 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
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
막일꾼
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거
정직하고 순박한 임 씨가 속물적인 '그'에게 약삭빠르게 살아야 한다는 충고를 하는 역설적인 상황
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 주세요.”

임 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15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
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청구하고 인심까지 쓴 임 씨 앞에서 면목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
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때 임 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꼭 움켜잡았다.

20 “사장님요, 기본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가십시오.”
도래인 '그'에게 친근감을 느낀 임 씨의 제안

임 씨는 백열구로 밝혀 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니요.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가 봅시다.”
위기 양심적으로 견적서를 수정해 준 임 씨를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낌.

25 **절정**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에게 맥주 세 병을 시켰다.

“워파메, 두 분이 어디서 그러코롬 일 차를 하셨당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 토박이말로 사
람을 어르는 재주가 있었다.

“맥주도 좋소만, 임 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턴 값아 주셔야 쓰것당게.”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김 반장이 외상 독촉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

30 임 씨는 두말없이 외상값 천삼백 원을 값아 주고는 기세 좋게 쥐포 세 마리 구

핵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심리

임 씨가 옥상을 공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임 씨가 견적서 대로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열심히 일하는 시늉을 한다고 의심함.
임 씨가 수리비를 수정하여 내놓았을 때	임 씨의 순박하고 정직한 모습에 놀라고 고마워하며, 그를 의심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함.
슈퍼에서 임 씨의 사연을 들었을 때	임 씨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에 게 연민을 느낌.



‘그’가 임 씨를 배웅하며 할 말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임 씨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선심까지 썼으며 돈도 양심적으로 청구했기에, 임 씨를 내내 의심하고 속물성을 감추지 못했던 ‘그’는 임 씨에게 떳떳하게 건넬 말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위 오라고 이른다.

“사장님요. 뭐 다른 안주도 시키십쇼.”

임 씨가 그를 보았다.

“어따, 동갑끼리 사장은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으십시다.”
임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태도가 드러남.

05

그가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소리를 쳤다. 임 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모습

“종수다, 형씨. 한잔 하십시다.”

임 씨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보여 주는 호칭 변화

임 씨가 호기를 부리며 소리 나게 잔을 부딪쳤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10

같은 토끼띠임을 강조하며 임 씨와의 동질감을 형성하려 함.
그의 허세도 임 씨 못지않았으므로 이윽고 두 사람은 주머니 받거나 술잔을 비우기 시작하였다.

“내가 이래 뻔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자식들이 잘 자라 주고 있는 것에서 오는 자부심

임 씨는 자신의 아들딸이 네 명이란 것, 큰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년은 학교 대표 농구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을 재주꾼이라
1970~80년대를 대표했던 여성 농구 선수의 이름
고 자랑했다.

15

 임 씨가 자식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공부, 농구 등을 잘하는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자식들에게 곰국 한번 제대로 못 먹일 만큼 충실하게 지원해 주지 못 하는 것을 한스럽고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놈들 곰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오,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자식들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스러움
너석 먹살을 휘어잡아야지.”

연탄값을 떼먹고 도망친 스웨터 공장 사장

임 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짹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 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20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 씨가 따라 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 씨의 말이 술기운과
비가 오는 날은 임 씨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못 받은 외상값을 받으러 스웨터 공장 사장네 집을 찾아가는 뜻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25

팔십만 원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 - 가족들에 대한 임 씨의 마음이 드러남.

마누라 빠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팔십만 원이오, 팔십만 원. 제기랄. 쉼타 공장 하던 놈한테 일 년 내 연탄을 대 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함.

임 씨의 착한 성품이 드러남.

근데 형씨, 아,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뭐니까. 우리
임 씨에게 한 말이 돈을 떼먹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
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30

핵심

임 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는 까닭

-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할 수 없음.
-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떼인 연탄 값을 받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임 씨의 힘겨운 삶을 보여 줌.

“그럼 받아야지, 암, 받아야 하구말구.”

‘그’가 임 씨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남.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 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

‘그’가 술에 취한 모습

에 비하면 임 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쥐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오. 쫓

05 아가면 지가 먼저 올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는

외상값을 안 주기 위해 거짓 핑계를 대는 스웨터 공장 사장의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모습

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깔 내.”

“척일 놈.”

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 본다. 뺨질뺨질한 상판에 배는 툭 볼거

임 씨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게 된 ‘그’가 스웨터 공장 사장의 외모를 부정적인 형태로 상상하고 있음.
저 나왔겠지.

10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 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지요.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아따, 일 년 삼백육십오 일 비 오는 날은 쟤고 쟤는디 머시 그리 걱정이당가
요?”

김 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 씨를 돌려 먹었다.

15 “시끄러, 인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조오타!”

반어적 표현

김 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 씨는 김 반장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띠면 어쩔 거여. 집이 있는
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산업화와 가리봉동

가리봉동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 수출가공업단지 제1단지(구로 공단)의 배후지이자 제2·3단지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서 산업화 시대의 상징적 장소이다. 이러한 가리봉동은 1960년대 이후 서울의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며,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업 구조 재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변화들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기도 하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가리봉동의 역사는 구로 공단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 오히려 가리봉동이라는 장소의 현재적 의미는 구로 공단에 의해 형성되고, 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리봉동은 1965년 구로 공단 착공 이래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한 최근까지의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서울의 대표적 다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서울역사아카이브

작품 개관

공간적 배경의 의미

원미동	서울 인근의 소도시 부천에 있는 동네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정착할 수 없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 이로 인해 갈등도 생기지만 화해를 통한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곳
가리봉동	공장 밀집 지역으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삶이 집약된 곳.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부유층의 속물적, 비윤리적 면모가 드러나는 곳

 임 씨는 왜 하필이면 비 오는 날마다 가리봉동에 가는 것일까?

[예시 답안] 막일꾼인 임 씨는 비가 오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날에는 때마침 외상이라도 독촉해 보기 위해 스웨터 공장 사장이 사는 가리봉동에 가는 것이다.

핵심

공간의 상징적 의미

임 씨의 지하실 방	정직하게 일한 노동자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현실, 도시 빈민의 가난한 삶
↓	
스웨터 공장 사장의 맨션아파트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잘사는 현실,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로 경제적 부를 이룬 자본가의 삶

“저런 것도 집 속에 끼나…….”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가탈(일이 손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의 선말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 씨의 말에 가로채여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요,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
돈을 때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돈을 때먹은 사람은 여전히 부자로 사는, 모순된 사회상이 드러남.
하실 방에서 여섯 식구가 살고 있소,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아파
트요, 맨션아파트!”

임 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션아파트
가진 것이 없는 임 씨의 처지를 환기함.
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구.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땀기
『』: 술에 취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억울함을 그대로 드러냄.
지,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임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 씨
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 놈 있음 나와 보래! 우리 같은 신세
『』: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임 씨의 원한 표출
는 평생 이 꼴로 끝장이야. 돈? 에이! 개수작 말라고 해.”

임 씨가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다. 그 바람에 기우뚱거리던 맥주병이 기어이
바닥으로 나뿔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빈민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
임 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중에는 임 씨

역시 맨션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 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갇은 음식 타박에 비 오는 날에는 양주나 짬뽕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
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천 번 만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그’ 자신도 그렇게 허황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없는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는 임 씨의 핏발 선 눈을 마주 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
소시민인 자신이 가진 속물적 근성
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 궁리를 거듭하던 꼴을 눈
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제아
무리 탄탄해도 라면 가닥으로 유지되는 사내의 몸뚱이는 술 앞에서 이미 제 기
가난해서 라면으로 식사를 하는 임 씨의 처지
운을 잃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 씨의 몸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점차 술이 깨고 있었다.

▶ 임 씨의 비관적 현실을 들으며 자신의 이해타산적인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그’
절정 비 오는 날이면 때인 연탄값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간다는 사연을 말하는 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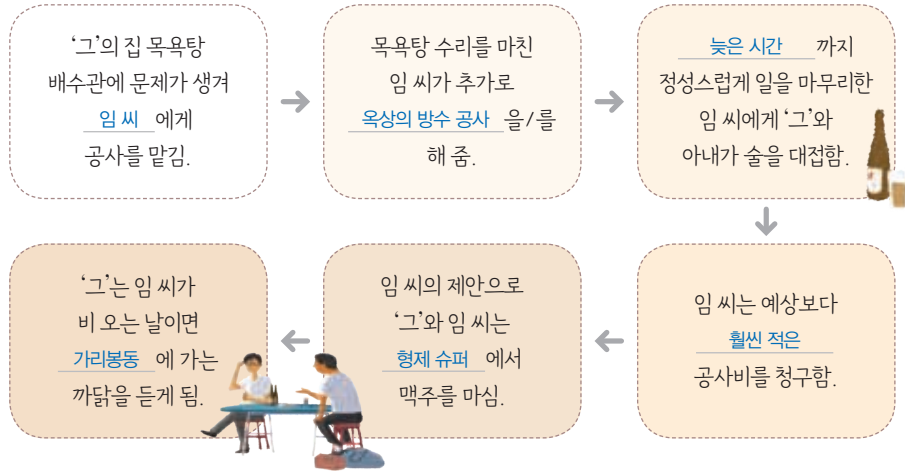
💡 ‘그’가 임 씨의 미래에 관해 낙
관적인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
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시 답안 노력만으로는 부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
문이다.



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에 드러난 주요 사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자.



2 다음 글을 읽고, 인물이 타자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정리해 보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는 성장과 소외,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던 19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빈부 격차가 벌어졌으며, 일부 부유층의 도덕적 타락은 정직한 노동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또 도시가 팽창하면서 서민들의 거처는 대도시 주변부로 옮겨 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소설은 그중 한 군데였던 원미동에 생애 처음 내 집을 장만한 소시민이 소외된 처지의 인물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 윗글과 이 작품의 내용을 연결 지어 각 인물을 소개하는 말을 작성해 보자.

예시 답안

'그'

대도시 주변부인 원미동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서민으로, 정직한 노동자인 임 씨를 오해했다가 그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인물이다.

임 씨

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하고 다른 때는 막일을 하며 정직한 노동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인물이다.

스웨터 공장 사장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는 부유층이지만 가난한 임 씨의 연탄값을 떼어먹은 채 핑계만 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다.

2-(1) **지도 방안** 1980년대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을 준거로 삼아 작품 속 인물들을 분석해 보는 활동이다. 성실히 노동을 하면서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빈곤층인 '임 씨', 빈곤층과 대비되는 부유층 중에서도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 주는 '스웨터 공장 사장', 그리고 양자 사이에 위치한 중산층 소시민으로서 자신의 숙물적 근성을 성찰하고 '임 씨'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그'에 관해 짧게 설명하는 글을 적어 보도록 도와준다.

(2) 밑줄 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 옥상 방수 공사 전후로 임 씨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고,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 옥상 방수 공사 이전에는 임 씨가 돈에만 관심 있는 일꾼일 것이라고 오해하고, 혹시 자기들이 손해라든 볼까 두려워했지만, 공사 이후에는 성실한 노동자로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옥상 방수 공사를 보며 ‘임 씨’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임을 알고, ‘임 씨’의 손에 특별한 데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임 씨가 견적서를 수정해서 제시하자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그런 감정을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

예시 답안 지금까지 임 씨를 의심했던 것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오해와 달리 임 씨가 양심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 ‘형제 슈퍼’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임 씨의 삶에 관해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예시 답안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간됨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임 씨가 비가 와서 일을 못 하는 날이면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떼인 연탄값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간다는 것과, 임 씨가 십사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타자와의 소통으로 도달하게 되는,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작품 너머로

보충

- 박지원, 「광문자전」, 관련 자료
- 지도서 2부 교과서 보충 자료집 98쪽

3

다음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 「광문자전」이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와 비교하여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앞부분 줄거리 >> 종로 저잣거리 거지 아이들의 우두머리였던 광문은 어느 겨울날 앓아누워 동냥을 나가지 못한 한 아이를 위해 밥을 빌어다 먹였으나 그 아이가 죽고 만다. 나머지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광문을 때리고 쫓아낸다. 이러한 오해가 갈등의 원인이 됨.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꼬꿍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거지 아이들}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떨쩍

『』: 광문의 인간성을 보여 주는 부분. 죽은 아이에 대해 느끼는 광문의 안타까움과 광문의 의로움이 드러남.
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짚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올라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다.』
『』: 광문의 사람됨을 알아본 집주인의 행동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 광문이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지만 물증이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 『』: 광문에 대한 부자의 의심이 오해였다는 게 밝혀짐. 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낫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아울러 이르는 말 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宗室)의 빈객들과 공경(公卿) 임금의 친족 귀한 손님 문하(門下)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 대니, 공경 문하의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의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광문의 사람됨에 대한 사회적 평가

— 박지원, 「광문자전」

수표교 조선 시대 청계천에 놓은 다리. 수위표로 물의 깊이를 재어 홍수를 대비하였다.

박지원, 「광문자전」

조선 후기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 문 단편 소설로, 비록 거지 출신이지만 훌륭한 인품을 가진 광문이란 인물의 삶에 얹힌 몇 가지 일화를 다룬 작품이다. 박지원은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인정이 있으며 정직한 광문의 훌륭한 인품을 그림으로써 그와 대비되는 양반 사회의 권모술수와 세속적 욕망을 은근히 풍자하였다.

3-(1) [지도 방안] 타자 이해와 관련하여 두 작품을 엮어 읽어 보는 활동이다. 거지 아이들, 집주인, 부자 등이 광문을 각각 어떻게 오해했는지 정리해 보도록 도와준다.

3-(2) [지도 방안]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공동체의 윤리 중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환기하는 활동이다. 이해와 공존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이끌어 준다.

- (1) 다음과 같이 타인에 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두 작품을 비교해 보고, 이어지는 내용을 완성해 보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의 ‘그’와 아내는 임 씨가 하지 않아도 될 공사로 공사비를 부풀리려 한다고 오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타인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광문자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광문자전」에서 거지 아이들은 광문이 병든 아이를 죽였다고 오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집주인은 광문이 도둑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으며, 부자는 광문이 약국의 돈을 몰래 훔쳤다고 의심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 (2) 두 작품의 감상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두 작품에서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타인의 언행을 선불리 오해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가진 생각에 대한 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공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양귀자

작품 감상

[지도 방안] '작품 감상'은 오해, 성찰, 이해와 공감 등을 핵심어로 삼아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읽은 바를 떠올리며 작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이끌어 주고, 작품의 주제에 관해 생각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배경지식

[지도 방안] '배경지식'의 작가의 말은 작가가 『원미동 사람들』 연작을 쓰던 당시를 회상한 내용의 일부이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현장을 찾아갔을 때의 느낌과, '원미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지닌 의미로부터 작가가 받았던 인상, 거기에 살면서 얻게 된 깨달음 등을 잘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고, 실제 작품에 반영된 측면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해도 좋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대도시 변두리에 사는 서민들의 삶을 그린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이다. 임 씨는 막일을 하는 노동자로, 비가 와서 일을 할 수 없는 날이면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떼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는 인물이다. 소시민인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임 씨를 불신하고 의심하지만, 임 씨의 성실성과 양심적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작가는 작품 속 인물을 통해 현대인들의 세속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을 드러내면서, 타인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작가의 말

처음으로 원미동을 찾던 날은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어느 겨울의 하오(오후)였다. 나는 만삭이었고, 이사 날짜는 매우 촉박해 있었다. 현실이 이러했을 때는 집에 대한 낭만적인 몽상 따위는 눈곱만큼도 남아 있지 않았었다. (...) 그럼에도 낯선 동네는 그 이름으로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그 이름은 현실에 배반당한 모 든 이들에게 불씨 같은 희망을 안겨 주려고 일부러 조립한 어휘처럼 내게 읽혔고, 나는 짐짓 그 희망을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원미동에서만 두서너 번 이사를 다니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왜 아름답지만 멀어야 하는지를, 혹은 멀지만 아름다운지를, 그 깨달음의 보고서로 씌어진 것이 『원미동 사람들』이었다.
저울의 변두리에 있지만 그 곳은 당시 소시민들의 진솔한 삶이 담겨 있기 때문에
- 『경향신문』(1992. 10. 11.)

단원을 마치며 308쪽

같은 연작 중 다른 작품

『한계령』_ 양귀자

밤무대 가수가 된 친구 은자의 연락을 받은 '나'가 큰오빠의 힘겨웠던 삶과 동시대 소시민들의 애환을 떠올려 보는 소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위로의 시선에 주목하며 감상해 보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타자 이해에 관한 다른 작품

『우리에게 일 년 누군가에겐 칠 년』_ 이기호

반려동물의 죽음을 대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린 소설. '나'가 자아를 성찰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흔들리지 않는 국어 자신감 강원회 국어가 함께 합니다.

강원회 강원회국어학원

흔들리지 않는 국어 자신감

- | | | |
|----------------------|--------------------------------|-----------------|
| ● 강원회국어학원 목동센터1·2·3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9 센트럴프라자 3층, 4층 | ☎ 02-2650-8503 |
| ● 강원회국어학원 동탄영천관 |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7 대성메디컬프라자 5층 | ☎ 031-375-8503 |
| ● 강원회국어학원 동탄나루관 | 경기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5층, 7층 | ☎ 031-8003-7008 |
| ● 강원회국어학원 동탄능동관 |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34 한솔프라자 6층 | ☎ 031-8003-8503 |
| ● 강원회국어학원 동탄호수관 |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9 우성애비뉴타워 9층 | ☎ 031-377-8503 |
| ● 강원회국어학원 오산세교관 | 경기 오산시 수목원로 466 성민리치프라자 4층 | ☎ 031-377-7008 |
| ● 파피루스문해원 목동센터럴관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49 센트럴프라자 4층 | ☎ 02-2650-8505 |
| ● 파피루스문해원 동탄영천관 |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707 대성메디컬프라자 5층 | ☎ 031-375-8503 |
| ● 파피루스문해원 동탄나루관 | 경기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5층 | ☎ 031-8003-7004 |
| ● 파피루스문해원 동탄능동관 | 경기 화성시 동탄지성로 134 한솔프라자 6층 | ☎ 031-8003-8503 |
| ● 파피루스문해원 동탄호수관 |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27-9 우성애비뉴타워 9층 | ☎ 031-377-8503 |